

이
가
회

치유에 대한
하나님의 지급

믿는 자의 권세

www.gillministries.com

병 고침을 위한 하나님의 준비하심

에이.엘. 과 조이스 길 씬

Gill Ministries

Website: www.gillministries.com

A.L.과 Joyce Gill 의 저서들

당신의 모든 필요를 위한 하나님의 약속들
패배 당하라고 지으시지 않았음!
예수의 이름으로 나오라!
속임수에 대한 승리!

연속적으로 출판된 교재들

믿는 자의 권세

실패를 끝내고 승리를 시작하는 방법

승리를 거둔 교회

사도행진을 통하여

사역을 위한 은사들

사도, 선지자, 복음전하는 자, 목사, 교사

기적의 복음 전파

땅 끝까지 다다르도록 하는 하나님의 계획

새로운 피조물의 형상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이 누구임을 알게 됨

삶의 모형들

구약 성경을 통해

찬양과 경배

하나님의 경배자로 되어감

기도

천국을 이 땅으로 가져옴

초자연적인 삶

성령의 은사들을 통한

저자들의 약력

에이 엘과 조이스 길은 국제적으로 알려진, 말씀을 전하는 분들이고 저자들이며 성경 교사들입니다. 에이 엘은 세계 60 개 이상의 나라를 여행하면서, 사도적 사역을 수행해 오고 있습니다. 그는 그 여행을 하면서 수백만 명에게 라디오와 텔레비전을 통해, 그리고 10 만 명 이상의 군중들에게 직접 말씀을 증거 하였습니다.

최고의 베스트 셀러인 그들의 책과 매뉴얼들(manuals)은 7 백 만 권 이상 판매되었고, 아직도 세계 여러 나라 언어로 번역되고 있습니다. 그들의 저서들은 세계 도처에서 성경 학교나 세미나에서 교재로 지금 사용되고 있습니다.

삶을 능력 있게 변화시키는 진리인 하나님 말씀이 그들의 역동적인 설교와, 가르침, 저서, 비디오, 오디오 사역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의 삶 속에서 팽창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놀라운 영광을 그들의 '경배와 찬양 세미나'에서 체험하며, 믿는 자들이 어떻게 하나님과 친밀하고도, 그 분의 진정한 예배자가 되는 법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믿는 자의 권세'에 대한 그들의 가르침을 통해서 많은 이들이 담대함과 승리의 새롭고, 흥미 진지한 차원을 발견해 오고 있습니다.

길 부부는 하나님의 치유의 능력이 그들의 손을 통해 흘러가도록 하면서, 많은 믿는 자들을 훈련시켜 하나님께서 주신 그들의 초자연적인 사역 속에 참여하도록 하였습니다. 많은 이들이 그들의 매일의 삶과 사역 가운데서 성령의 아홉 가지 은사 모두를 작동하기 위해서 풀려 났을 때 초자연적인 자연스러움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에이 엘과 조이스 길은 신학과의 석사학위를 가지고 있으며, 에이 엘의 경우 Vision Christian University 의 신학 과정에서 신학 박사 학위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확고히 기반을 둔 그들의 사역은 예수님과 견고한 믿음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으며, 성령의 능력으로 그것들을 가르칩니다.

그들의 사역은 하나님 아버지 사랑을 보여 줍니다. 그들의 설교와 가르침은 권능의 기름부으심과, 표적과 기사 그리고 병 고침의 기적이 수반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밀려오는 물결처럼 하나님의 능력 아래 쓰러집니다.

거룩한 웃음과 주님 앞에서의 흐느낌의 물결을 포함한 부흥의 표적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의 경외할 만한 나타나심이 그들의 집회에 참석한 많은 이들에 의해 경험되어지고 있습니다.

교사들과 학생들에게 부치는 글

병 치유에 관한 이러한 능력 있는 가르침은 학생들에게 그들 자신의 병 고침을 받을 수 있고 또 온전한 건강으로 살면서 담대하게 다른 이들에게 병 치유를 사역할 수 있는 믿음을 풀어 놓아 주는 탄탄한 말씀의 기반을 쌓아 줍니다. 이러한 계시가 그들의 영 속에서 생동하게 되면 사람들이 치유를 받게 될 것입니다.

마가복음에 의하면, 예수께서 이 땅을 자별하시지 전 그의 제자들에게 남기셨던 마지막 교훈의 말씀들은 “저들이 병든 삶에게 손을 얹은 즉 저들이 나으리라.”였습니다. 이 교재는 병든 자에게 병 치유를 사역하는 방법에 관한 실질적인 지시 사항들을 알려 줍니다.

우리는 이 과정을 가르치기 전에 여러분이 **추천해 놓은 책들**이나 테이프를 상용하기를 권합니다. 여러분이 믿는 자의 권세와 영적 싸움에 관련된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로 자신이 포화 상태가 되면 될수록, 이러한 진리는 더 많이 여러분의 마음에서 영으로 이전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 책은 이러한 진리를 여러분이 다른 사람들에게 넣어주는 데 사용할 수 있는 지침을 마련해 주게 될 것입니다.

개인적 예화는 효과적인 가르침에서 필수적으로 중요합니다. 저자가 이 책에서 그 부분을 삭제한 이유는 그로 인하여 각 교사마다 자신의 풍부한 체험이나 다른 이들의 체험에서 얻은 예화들을 준비하게 될 것이며 학생들은 가르쳐 주시는 분은 성령님이시라는 사실을 기억해야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공부할 때나 혹은 가르칠 때마다 언제나 성령님의 능력과 인도 하심에 의지해야 됩니다.

이 교재는 개인이나 단체 공부, 성경학교 (정식인가가 용이함 - 마지막 페이지 참조) 가정그룹에서 훌륭한 재료가 됩니다. 이 과정을 공부하는 동안 교사와 학생 양쪽 다 이 책을 구입하여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책 속에 기입하여 넣고 밑줄을 긋고 또 목상해 보고 소화시켜 놓은 책이 제일 좋은 책이 되겠습니다. 여러분이 적어둔 곳과 해석을 기록하도록 공간을 남겨 두었습니다. 이 책은 복습을 위해 빨리 참고내용을 찾을 수 있고 또다시 그 부분으로 되돌아가서 찾는 것이 용이하도록 고안하여 구성되었습니다. 이러한 특수한 구성 형태는 각자가 일단 이 재료를 끝낸 후에 그 내용을 다른 이들에게 가르치는 것이 가능하게끔 만들어 놓았습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서한을 썼습니다.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저희가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디모데후서 2:26

이 과정은 사역개발체계(MINDS, Ministry Development System)의 형태로 조직적인 수업을 취득하도록 특별히 고안된 것입니다. 이러한 개념은 사람들과 사역과 또 학생들의 장래 가르침을 늘릴 수 있도록 고안된 것입니다. 먼저 배운 학생들은 이 책을 사용함으로써 쉽게 다른 이들에게 이 과정을 가르칠 수 있습니다.

목 차

제 1 과	병약함과 질병에 대한 하나님의 관점	7
제 2 과	우리의 구속에서의 치유	21
제 3 과	예수 - 우리의 모범	35
제 4 과	성령과 그 분의 권능	48
제 5 과	안수를 통한 병 고침	61
제 6 과	우리가 말하는 말씀	73
제 7 과	행동과 기도를 통한 병 고침	86
제 8 과	안으로부터의 치유	99
제 9 과	성령과 그 분의 은사들	113
제 10 과	병 고침 받음과 당신의 병 고침을 간직함	127

병 고침을 위한 하나님의 준비하심 교재내용의 성구들은
새 킹 제임스 번역판(*New King James Version*)에서 인용하였음,
출판권 1979, 1980, 1982. Thomas Nelson 출판사
그리고 상세한 번역 내용의 성구들은
The Amplified Bible 에서 인용하였음,
출판권 1954~1965. Lockman Foundation and Zondervan 출판사.
Lockman Foundation and Zondervan 출판사의 허락하에 사용

추천하는 책들

치료자 그리스도(*Christ the Healer*), F. F. Bosworth 著

병든 자를 치료하는 방법(*How to Heal the Sick*), Charles & Frances Hunter 著

병든 자를 치료함(*Healing the Sick*), T.L. Osborn 著

제 1 과

병약함과 질병에 대한 하나님의 관점

서론

➤ 하나님의 관점

한 주제를 공부할 때, 때때로 한 발짝 뒤로 물러서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고, 최선의 방법입니다. 병약함과 질병에 대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이번 공부를 통해, 우리는 병 고침과 건강이 성경 전체를 통한 하나님의 계획의 일부분이었고, 계속해서 우리의 삶과 사역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의 매우 중요한 일부분임을 보게 될 것입니다. 병 고침은 하나님의 약속들 중의 하나입니다. 어떠한 약속이라도 우리가 믿고, 행동으로 옮겨 놓을 때, 그 약속은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의 삶 속에서 풀어 놓습니다.

잠언 4:20, 22 내 아들이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나의 이르는 것에 네 귀를 기울이라. 그것은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 온 육체의 건강이 됨이니라.

➤ 병약함의 원천

우리가 병약함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을지도 모른다고 믿는다면, 우리는 우리의 병 치유를 위해 하나님을 믿을 수 없을 것입니다. 이 때문에, 우리는 병약함의 원천에 대해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병 고침의 중요성

하나님께 중요함

하나님을 충분히 알기 위해서는,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을 치료자로 알아야 됩니다.

출 15:26b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 이니라.

만일 우리가 여호와를 우리의 치료자로 알지 못한다면,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중요한 한 차원을 잃어버리고 있는 셈입니다. 병 고침은 하나님 - 성부, 성자, 성령 - 에게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 성부 하나님

성령님은 요한을 감동시켜 병 고침이 아버지의 뜻임을 우리에게 말하고, 쓰도록 했습니다.

요삼 2 (킹제임스) 사랑하는 자여, 무엇보다도 네 영혼이 잘됨과 꼭 같이, 네가 잘 되고 건강하기를 내가 소원하노라.

병 고침이 항상 하나님의 뜻임을 우리가 이해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사항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바를 또한 기록하기를,

요 6:38, 39a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 성자 예수님

복음서를 통해 나타난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면, 우리는 허다한 다른 상황들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병 고치시는 것을 발견합니다. 병든 자들에 대한 예수님의 불쌍히 여기심은 지속적으로, 분명히 나타납니다. 병 치유는 그 분의 사역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 했었습니다.

막 1:40~41 한 문둥병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리어 간구하여 가로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케 하실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민망히 여기서 손을 내밀어 저에게 대시며 가라사대,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대

병 치유는 예수님에게 중요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을 행하려고 오셨기 때문이었습니다.

히 10:7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과 같이 -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예수께서 사람들을 고쳐주시며 두루 다니심은 아버지의 뜻을 행하셨던 것입니다.

마 9:35 예수께서 모든 성과 촌에 두루 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 성령님

병 고침은 성령님에게 중요하며, 또 그분의 기름 부으심의 중요한 목적 중 하나입니다. 누가복음에서 우리는 상한 마음을 가진 자들을 치유하기 위해 성령님께서 예수님에게 기름을 부으시는 것을 읽습니다.

눅 4:18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성령님은 마귀에게 눌린 자들을 고치기 위해 예수님에게 기름을 부으셨습니다.

행 10:38 하나님의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며, 저가 두루 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확실히 증거함

병 치유는 길 잃고, 죽어가는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을 확실히 증거하는 주님의 방법이기에 때문에 중요합니다.

막 16:20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새 주께서 함께 역사하시,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거하시니라.

오늘날 이 세상은 예수님을 필요로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의 말씀을 확증하기위해, 따르는 표적을 가지고 나가도록 위임하셨습니다. 귀신들을 쫓고, 약한 자들을 고치는 것은 복음의 진리에 사람들의 눈을 뜰 수 있도록 도와주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헛되이 고난 당하셨습니까?

만일 우리가 병든 자들을 고치는 사역을 하지 않는다면, 그리스도가 그의 몸에 담당하셨던 채찍의 고통은 모두가 헛된 것이었습니다.

사 53:5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병 치유에 관해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하신 바를 우리가 무시할 때, 우리는 하

나님의 은혜를 무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병 치유를 위해 예수님께서 담당하셨던 고통 - 체찍질 - 을 무효로 만들고 있는 셈입니다.

갈 2:21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폐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생명을 건질 수 있음!

병 치유는 여러분의 생명과, 가족들의 생명과 또 여러분의 친구들의 생명을 살릴 수 있습니다.

호세아 선지자가 기록하기를,

호 4:6a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우리의 몸과 혼을 위한 병 고침은 우리를 위해 하나님께서 준비하셨습니다. 우리도 다윗처럼, 죽지 않고 오래 살아야 하며, 예수님을 위한 증인으로서 건강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시 118:17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와 행사를 선포하리로다.

하나님 말씀 속에 있는 병 고침의 계시는 많은 사람들이 일찍 죽어 가는 것을 막았습니다.

약 5:14~15 너희 중에 병든 자각 있느냐? 저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얻으리라.

지상 명령의 일부분임

➤ 제자들에게 명령하셨음

병 치유는 예수님의 제자들과 그 분을 따르는 자들의 훈련과 사역에서 중요한 부분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두루 다니시며, 병든 자들을 고치신 것처럼 예수님께서서는 제자들에게도 같은 일을 행하도록 명령하셨습니다.

마 10:1, 7, 8 예수께서 그 열 두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웠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문둥이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예수님은 예수님을 믿는 어느 누구나 자신이 행하셨던 일들과 꼭 같은 일을 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셨던 바를 우리가 실제로 행하게 된다면, 병 고침은 우리에게 중요한 것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요 14:12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

예수님께서서는 자신이 하셨던 바와 꼭 같이 우리가 병 고치는 사역을 할 것이요, 기적을 행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 우리에게 명령하셨음

병든 자에게 손을 얹고, 병 고침 사역을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모든 믿는 자들에게 주신 지상 명령의 일부분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기를,

요 14:15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예수님께서서는 마지막 명령을 하셨습니다.

막 16:15~18 또 가라사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예수님께서 그를 믿는 자들에게 하신 마지막 말씀은 제안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명령이었습니다! 병든 자들을 고치는 것은 순종하는 우리에게 중요한 것입니다.

병약함의 근원

▶ 병약함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입니까? 아니면 사탄으로부터 온 것입니까?

이러한 논쟁들에 관해 우리 마음 속에 어떠한 의심을 가지고 있는 한, 우리는 두 마음을 품게 될 것이며, 믿음이 없이 패배를 당하게 됩니다. 병약함의 문제를 다루는 방법을 올바르게 알기 위해서는 우리는 병약함의 원천, 근원과 목적에 대한 확고한 이해함을 갖도록 해야 합니다.

진리는 자유함을 가져 옵니다

우리가 병약함과 질병과 고통의 근원에 관한 진리를 발견할 때, 우리는 담대히 병 고침을 받는 것과 병 고침의 사역을 하는데 자유함을 얻을 것입니다.

요 14:6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진리는 예수님께서 행하신 사역들과 하신 그분의 하신 말씀에 의해 계시되었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요 8:32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병약함에 관련된 질문들

병약함의 원천, 근원과 목적에 대한 진리를 발견하기 위해, 우리는 종종 묻게 되는, 몇몇 전형적인 질문들에 대한 답변을 찾아봄으로 시작할까 합니다.

▶ 하나님의 뜻입니까?

▶ 병든 자를 고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병 고침을 가로막는 가장 큰 방해요소는 모든 이의 병을 고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하는 반신 반의 하는 것입니다. 사탄은 우리를 대적해서 옵니다. 우리의 마음 속에 의심의 말을 집어 넣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의하지 않으면, 우리의 사역에 의심을 가지게 됩니다.

이러한 의심이 전통적인 기도의 말들로 표현되는 것을 우리는 듣습니다. “주님, 이것이 주님의 뜻이라면, 주님의 병 고치는 손길이... 임하기를 우리가 간구합니다.”

이런 류의 기도는 모든 이들이 병 고침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 하는 의심과 반신 반의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병 고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확신이 우리의 영 속에 없고 서는 우리 자신과 다른 이를 위한 믿음의 기도를 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우리는 “만일 당신이 원하신다면” 이라고 말하는 문둥병자에게서 그러한 의심의 증거를 보게 됩니다.

막 1:39~41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저희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어 쫓으시더라.

한 문둥병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리어 간구하여 가로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케 하실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민망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저에게 대시며 가라사대,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대

예수님께서서는 “만일(if)”이라는 말을 “내가 원하노니.” 라고 간단히 말씀하심으로 말소시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일은 하나님의 백성을 위한 아버지의 뜻의 계시였습니다.

➡ 내가 병 낫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우리가 매일 건강하게 사는 것은 다른 모든 것보다도 우위에 있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요삼 2 (KJV) 사랑하는 자여, 다른 모든 것보다도 나는 너희 영혼이 잘 되는 것과 꼭 같이 네가 잘 되고 건강함 속에 있기를 원하노라.

예수님께서 병든 자들을 고치셨다면, 그러면 그것은 병든 자를 치유하는 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병든 자들을 고치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기 때문에, 당신을 고치시는 것은 아버지의 뜻입니다!

➤ 우리에게 선을 이루기 위함?

➡ 병약함은 우리에게 모든 것이 합력(合力)하여 선(善)을 이루게 하는 하나님의 방법 중의 하나가 아닙니까?

많은 사람들이 병약함이 바울의 말한 바, 우리의 선을 위해 협력하는 “모든 것들” 중의 하나라고 가르침을 받아 왔습니다.

롬 8:28 (KJV).....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새 국제 번역판 (NIV)은 이 구절에 대한 더욱 분명한 이해를 우리에게 줍니다. 롬 8:28 을 가리켜 말하기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의 선을 위해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들 가운데서 역사하시느니라.

강조점은 모든 일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선을 이루기 위해서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우리의 선을위하여 협력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대신 “모든 일 가운데서” 즉 “우리의 병약함 가운데서” 하나님의 병 고치는 능력의 역사가 선을 만들어 낼 것이라는 것입니다.

➤ 그를 위해서 고난을 받는 것입니까?

➡ **병약함은 우리가 “그를 위해서 고난을 당하도록 되어있는” 방법들 중의 하나입니까?**

빌 1:29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심이라.

성경 구절을 잘못 해석하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 이 주제의 상황과 배경을 고려하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 경우는 수감중인 바울이 복음을 위해 사슬에 매인 그의 고난에 대해서 쓰고 있습니다.

빌 1:12-14 형제들아 나의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의 진보가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온 시위대 안과 기타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을 인하여 주 안에서 신뢰하므로 겁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말하게 되었느니라

이 구절의 상황으로 볼 때 바울이 말하고 있는 고난은 병약함이나 질병에 관한 진술이 아니었음이 분명합니다. 그대신 그것은 복음을 위해서 겪는 투옥과 핍박의 고난이었습니다.

➤ 연단을 위해서?

➡ **하나님께서서는 사람들을 바로 잡기 위해서, 벌주기 위해서, 연단하기 위해서, 혹은 그들에게 인내를 가르쳐 주기 위해서 병약함을 가져 다 주십니까?**

사람들에게 병약함과 질병을 가져 다 주는 이는 하나님 이 아니라 사탄입니다.

욥 2:7 사단이 이에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서 욥을 쳐서, 그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악창이 나게 한지라.

우리는 연단할 목적으로 자신의 자녀들에게 암을 가져 다 주는 사랑이 많고, 보살피주는 육신의 아버지를 상상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그의 자녀들에게 병약함과 질병을 가져 다 준다고 상상이나 할 수 있겠습니까?

요 10:10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 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예수님께서서는 마귀가 우리를 죽이려 하고, 우리의 건강을 도적질하고, 병약함과 질병으로 우리를 멸망하기 위해서 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서는 풍성한 생명, 즉 병약함이나, 질병 그리고 고통이 없는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상으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을 때, 인류가 그렇게 되도록 의도하시고, 창조하신 모든 바대로 우리를 회복시키기 위해 오셨습니다.

➤ 바울의 가시에 관해서?

➡ **바울의 가시가 병약함이었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경을 오해함으로, 어떤 이들은 육체에 있는 사도 바울의 가시는 심각한 눈의 질병이었다고 가르쳤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자신의 가시는 악령, 즉 자신을 괴롭히고 귀찮게 하기 위해서 보냄을 받은 사탄의 사자이다라고 썼습니다.

고후 12:7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고하지

얇게 하려 하심이니라.

성경 어디에도 바울의 육체의 가시가 육체적 병이었다고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다.

➤ 병들어 죽을 필요까지 있습니까?

➡ **하나님께서 우리를 집으로 데려가시려 하실 때, 우리가 병들어 죽을 필요까지 있습니까?**

우리의 생애 동안 매일 건강하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병들어 죽게끔 하십니까?

모세가 훌륭한 본보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집으로 부르실 때, 그의 나이는 120 살이었습니다. 그의 건강은 매우 좋았고, 그는 하나님을 만나 뵈기 위해 여전히 산에 오를 수 있었습니다. 그는 시력이나 기력을 도무지 잃지 않았습니다.

신 34:7 모세의 죽을 때 나이 일백 이십 세나 그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나이든 사람이 병들었을 때, 그들이 병 고침 받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때에 그들의 영이 그들의 몸을 떠날 것이고, 그들의 심장 박동이 멈출 것입니다.

➤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 아닙니까?

➡ **병약함이나 때가 이르기 전에 일찍 죽는 일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일어나는 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입니까?**

질병이나 죽음이 닥쳐올 때, 많은 사람들이 “왜 하나님께서 이 일이 일어나도록 허용하셨을까?”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을 비난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 되어졌을 때, 이 땅 위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에 대한 권세와 주권이 그들에게 주어졌습니다.

창 1:26a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 다스리게 하자!”

아담과 하와가 범죄 하였을 때 잃어버린 권세와 주권은 예수님에 의해 되찾은 바 되었습니다.

마 16:19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병약함은 사탄의 능력으로부터 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서는 오늘날 믿는 자들이 원수의 능력에 대한 능력(혹은 권세)을 소유하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눅 10:19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단코 없으리라.

마귀가 우리 자신과 우리의 사랑하는 이들에게 병약함과 질병과 그리고 죽음을 가져오도록 허용한 이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대한 하나님께서 주신 주권을 사용하지 않은 우리입니다.

병약함의 근원

모든 병약함과 질병은 하나님이 아니라 마귀로부터 온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건강과 영양의 원칙들을 소홀히 하거나 아니면 죄와 불순종으로 인해 병마에게 장소를 내어주었기 때문에 병이 듭니다.

엡 4:27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우리는 우리의 회복된 권세를 사용함으로, 마귀와 병마들 그리고 이미 와 있는 병약함을 물리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은 우리로부터 도망치듯 떠날 것입니다.

약 4:7b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믿는 자들은 병마를 쫓아내며, 모든 종류의 병약함과 질병을 치유할 수 있는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마 10:1 예수께서 그 열두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마귀가 오늘날 우리에게 할 수 있는 유일한 일들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마

귀 자신이 설치도록 내버려두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도록 허용하실까?”라는 질문 대신에 “왜 우리가 이러한 일이 일어나도록 허용하고 있는가?”라고 질문이 되어야 합니다.

주: 이 질문을 충분히 이해하려면 에이. 엘의 매뉴얼인 ‘**믿는 자의 권세**’와 그의 책 ‘**예정된 주권**’을 읽어 보시기를 추천합니다.

사탄은 우리를 패퇴시키기 위해서 무기로 병약함을 사용함

사탄의 타락

사탄과 그의 천사들은 하늘에서 반역 후로 이 땅에 떨어졌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읽게 됩니다;

계 12:7-10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으로 더불어 싸울새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저희의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어쫓기니,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꾀는 자라.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저와 함께 내어 쫓기니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가로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이루었으니, 우리 형제를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인간

하나님께서서는 사탄이 타락한 후, 사탄이 내어쫓긴 바로 그 행성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지으셨습니다. 때가 되어 하나님께서는 사탄이 이미 다스리고 있던 지구에 대한 주권을 인간이 갖도록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창 1:26, 28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 인간은 다음과 같이 지음을 받았습니다.

- 하나님처럼 보이도록
- 하나님처럼 걷도록
- 하나님처럼 말하도록
- 이 땅을 다스리도록!

사탄은 인간을 증옴

여러분 자신을 사탄의 입장에서 두고 상상해 보십시오! 하늘에 있는 최고의 지위들 중의 하나에서 하나의 작은 행성인 지구로 내어 쫓기게 된 것입니다. 자신을 지극히 높은 자처럼 만들고 되고 싶어 했던 이 자는 하나님께 대한 격노하는 증오심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 공포에 쌓인 채 이것을 지켜봤을 것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서는 사탄이 이미 다스리고 있었던 모든 것에 대한 주권을 인간에게 주셨습니다.

사탄은 남자와 여자를 볼 때마다, 틀림없이 그의 가장 큰 분노의 대상인 하나님이 생각났었을 것입니다. 사탄은 하나님처럼 보이고, 하나님처럼 행동하는 인간을 볼 때, 그의 증오는 격렬합니다. 그러한 증오는 도적질하고, 죽이고 또 멸하는 것으로 표현됩니다.

사도 요한은 쓰기를,

요 10:10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사탄은 우리가 지구 위에서 하나님의 대표자임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기에 사탄의 가장 큰 바람은 우리를 패배시키는 것입니다.

➤ 인간은 사탄의 피해자임

손실, 죽음과 파멸은 언제나 사탄의 하는 일입니다. 아담과 하와의 타락이후 4,000년 동안 인간은 마귀의 압제와 속박과 굴레 아래에서 살아왔습니다.

- 주권을 가지고 걸어가도록 지음을 받았던 인간들은 불구와 장님이 되었고, 길가에 앉아서 구걸하고 있었습니다.
- 똑바로 서서 걷도록 지음을 받았던 여자는 불구가 되었고 고통과 절망 속에 고개를 떨구고 있었습니다.
- 하나님과 꼭 같이 (그의 형상대로) 보이도록 지음을 입었던 남자와 여자들은 지금 그들의 얼굴과 몸들의 특징들이라고는 문둥병으로 딱히 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인류를 병약함과 질병과 고통의 압제와 속박과 굴레 아래에서 벗어나 자유하게 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서는 사탄의 압제로부터 우리가 해방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의 속박에서 풀려나오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잘되기를 원하십니다.

모든 병약함과 병들의 근원은 - 하나님의 아니시고 사탄입니다.

문 제

1. 여러분이 병 고침을 받고, 그리고 다른 이들에게 병 고치는 사역을 하는 것이 왜 하나님께 중요합니까?
2. 사랑하는 아버지로서 하나님은 그의 자녀인 당신에게 연약함을 주시고자 하시겠습니까? 성경을 사용하여 설명하십시오.
3. 만일 당신이 사탄이고, 인류를 공격함으로써 하나님께 향한 당신의 분노를 보여주하고자 한다면, 당신이 하고 싶은 일들을 세 가지 열거하십시오.
4. 예수님은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자 오셨습니다. 당신은 육신에 병약함을 지니고 계속해서 살아야만 될 어떤 이유가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까?

제 2 과

우리의 구속에서의 치유

예수님께서 그의 고난과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병 치유를 위해 예수님께서 준비하셨던 것들 보다 사탄이 그리스도인 들로부터 숨기려고 애쓰는 진리도 없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준비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이해합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여전히 병 고침이 어떤 사람들을 위한 - 이전 시대 때에만 제공된 것이었다 -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라고 믿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죄악을 인하여 그가 상함을 입었다”라는 진리를 받아 들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라는 진리는 무시하였습니다. 이 두 진술이 같은 성경 구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 53:5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यो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하나님께서서는 우리와 언약을 맺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언약은 병 고침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신유의 언약

하나님과 의 언약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 모형이나 상징적인 의미들에 대한 연구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계획에 관한 풍성한 통찰력을 제시해 줍니다. 구약의 모형이 신약에서 성취되었을 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사역을 밝혀 나타내 보여줍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홍해를 건너서 애굽으로부터 해방된 사건은 죄의 속박에서의 풀려나온 우리의 구속의 한 모형입니다.

언약

➡ **언약이란 두 집단이나 혹은 두 개인 또는 이 연구에서는, 하나님과 그의 백성들을 하나로 묶는 협약과 헌신의 중대한 약속입니다.**

이스라엘이 홍해를 건너고 난 후 즉시, 하나님께서는 병치유의 언약을 체결하셨고, 자신을 치료자로 계시하셨습니다.

출 15:26 가라사대,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와 그의 말을 청종하고, 나의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의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히브리 이름, 여호와 - 라파는 “나는 너희의 의사인 여호와이니라.” 혹은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이니라.”는 의미로 사용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이름들

여호와는 하나님에 대한 구속의 이름이며, 그 의미는 “자신을 계시하시는,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입니다.

여호와라는 이름에는 그의 언약 백성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며, 자신을 계시하신 7 개의 복합적인 구속의 이름들이 내포 되어 있습니다.

> 여호와 - 삼마

➡ 여호와는 거기 계십니다.

겔 48:35 그 날 후로는 그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삼마(여호와께서 거기 계시다)라 하리라.

> 여호와 - 샬롬

➡ 여호와는 평안이십니다.

삿 6:23~24 ...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기를,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기드온이 여호와를 위하여 거기서 단을 쌓고 이름을 여호와 샬롬(평안)이라 하였더라.

> 여호와 - 로에

➡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십니다.

시 23:1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 여호와 - 이레

➡ 여호와께서 준비하실 것입니다.

창 22:13~14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수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

풀에 걸렸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수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를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여호와께서 준비하실 것이다)라 하였으므로, 오늘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 여호와 - 닛시

➡ 여호와는 우리의 깃발, 승리자 혹은 대장입니다.

출 17:12~13,15 ...모세의 팔이 피곤하여,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로 그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하나는 이편에서, 하나는 저편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파하니라. 모세가 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닛시(여호와는 나의 깃발이니)라 하고.

➤ 여호와 - 치케누

➡ 여호와는 우리의 의입니다.

렘 23:6 ...그의 날에 유다는 구원을 얻겠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거할 것이며, 그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의(여호와-치케누)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 여호와 - 라파

➡ 나는 너희의 의사인 여호와이니라, 혹은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출 15:26b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우리는 말씀 어디에서도 하나님께서 이 언약을 취소했다고 한 곳을 볼 수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는 과거에 너의 의사 여호와였었다.”라거나 혹은 “나는 그들을 치료하곤 했던 여호와였다.”라고 기록한 곳을 성경 어디에서도 찾아 볼 수가 없습니다. 어느 곳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나는 너희를 병들게 하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병 치유의 언약적 약속

여호와 - 라파는 그의 백성을 위해 병 치유를 준비하시기로 하신 하나님의 언약적 약속의 계시입니다.

다윗에 의하면, 여호와 - 라파로서의 하나님의 계시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얼마나 잘 받아들여졌고, 믿은 바가 되었는지 모든 백성들이 건강을 누렸다고 했습니다.

사 105:37b(KJV) 그 지파 중에 약한 자가 하나도 없었도다.

이스라엘 백성이 죄를 지어 그들의 건강을 해쳤을 때, 그들은 회개하였고, 레 위기에 적힌 율법에 따라 희생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모든 이들에게 여호와 - 라파가 되어주셨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속과 속죄의 복음을 전파할 때, 우리는 병든 자들을 위해 주어진 똑같은 약속을 가집니다.

이사야가 전함 - 치료하는 구속자

수 백년 동안, 믿지 않는 히브리 학자들은 이사야 53 장이 원래 유대인의 성경에 없었다는 것을 증명하려고 부단히 노력하였습니다. 그러나 1947 년에 콤파에서 두루마리들이 발견되었는데, 그 중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완전했던, 유일한 두루마리가 이사야서였습니다. 그 두루마리의 이사야 53 장에는 예수님에 관한 완벽한 예언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누가 믿을 것인가?

이사야 선지자가 기록하기를,

사 53:1a ...우리의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우리의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우리가 이 내용을 연구할 때, 선택권은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는 그 전한 바를 믿고서 유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아니면 그 내용을 의심하여 유익을 누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강력하신가?

사 53:1b ...여호와의 팔이 뉘게 나타났느냐?

그 전한 바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여호와의 팔이 나타날 것입니다. 여호와의 팔이란 하나님의 강력한 권능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들에게 이런 질문을 해보아야 합니다. “나의 하나님이 얼마나 강력하신가?”

이사야는 우리를 위해 하나님의 권능을 이렇게 기술했습니다.

사 45:12 내가 땅을 만들고, 그 위에 사람을 창조하였으며, 내가 - 내 손으로 하늘을 펴고, 그 만상을 명하였노라.

후에, 이사야는 하나님의 손과 귀에 관해 기술하였습니다.

사 59:1 여호와와 그의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하나님은 너무나도 강력하십니다! 그의 팔과 손으로 하늘들을 펼쳐 놓으셨습니다. 육체로 나타나신 바 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병든 자들을 고치셨습니다. 그의 팔은 이미 계시되었습니다(=나타났습니다). 오늘날, 구원과 병 고침을 받을 수 없을 만큼 그의 손이 짧지 않게 되었습니다.

계시

믿는 자들은 이사야가 전한 이 말씀의 충만한 계시를 받을 것입니다. 그들은 병 고침을 위한 하나님의 준비하심이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준비하심 만큼이나 자신들을 위하여 예수님께서 이루신 구속사역의 큰 부분임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이 내적 이해함은 초자연적인 계시 - 우리의 영 속에서 하나님 말씀이 갑자기 깨달아짐 - 로 옵니다. 계시는 우리 머리의 이성적인 능력을 통해 오지 않습니다. “계시됨”이라는 말에 주의하십시오.

사 53:1b ... 여호와와 그의 팔이 뉘게 계시되었느냐(나타났느냐)?

“로고스”란 말은 쓰여진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는 헬라어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말씀의 어느 부분에 계시를 우리에게 가져다 주실 때, 그것은 “레마”가 됩니다. “레마”는 성령에 의하여 우리 영 속에 말씀하신 바가 된 개인적인 말씀 혹은 개인적인 계시에 해당하는 헬라어입니다.

자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거나 묵상할 때, “빛이 들어올 것입니다.” 갑자기 어느 진리가 우리의 이해함 속으로 들어 옵니다. 우리는 “와! 하나님께서 내 성경에다 새로운 구절을 딱 넣어 주셨어! 이것이 내가 계속 찾아 왔던 답이었어. 나는 이전에 이런 식으로 본 적이 없었어!”라고 소리칠지도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진리를 우리의 영 속에다 방금 계시하신 것입니다. 로고스는

우리에게 개인적인 레마가 되어왔습니다. 그럴 때, 즉각적으로 믿음이 우리의 영속에 들어오게 되며, 그 믿음이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께서 이미 준비해 놓으셨던 병 고침에 이르러 그것을 받아 들이게 합니다.

롬 10:17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사야가 전한 바 그 내용으로 다시 돌아가면은,

사 53:3-5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싫어버린 바 되었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에게 얼굴을 가리우고 보지 않음을 받는 자 같아서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분명히 그는 지었음

그는 실로(Surely)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며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음이여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 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네 구절들이 “실로(Surely)”라는 말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실로(Surely)”라는 말은 무엇을 뜻하는 것입니까? 웹스터 사전(Webster’s Dictionary) 에 따르면, 그 뜻은:

- 보증이나 확신있는
- 과단성 있는 태도로
- 의심이 전혀 없는
- 의문의 여지가 없이
- 확실히
- 철저히 강조하는 확신으로서 사용됨

예수님의 고난

상세한 번역본(Amplified Version)은 우리에게 이 구절에 대한 좀더 완벽한 이해를 제공합니다.

사 53:4~5 (상세한 번역본) 그는 실로 우리의 큰 고통 - 병약함, 연약함, 곤경 - 을 지고 우리의 슬픔과 [형벌의] 고통을 당하였거늘 그러나 우리는 무지해서 생각하기를 그는 [문둥병자처럼]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러나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우리의 번영과 평강을 얻기 위해 필요한 징벌은 그에게 임했고, 그가 맞은 채찍으로 인해 우리가 나음을 입었고, 온전케 되었느니라.

이사야는 “분명히 그가 우리의 병약함과 나약함 그리고 곤경을 담당하셨고, 우리의 슬픔과 고통을 가져 가셨다.”고 기록하였습니다. 이 얼마 안 되는 구절들이 우리에게 큰 확신과 보증을 가져 다 줍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를 담당할 필요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 분명히 예수님께서 담당하셨던 것과 같이 우리가 더 이상 우리의 병약함과 나약함 그리고 곤경을 담당할 필요가 없도록 하기 위해 예수님께서 분명히 그것들을 담당하셨습니다.

이사야가 전한 바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왜 고통을 당하셨습니까?

- 우리의 큰 고통 - 병약함, 연약함과 곤경
- 우리의 슬픔 - 고통
- 우리의 허물들
- 우리의 죄악들
- 우리의 평화와 번영
- 우리의 병을 고치고, 온전토록 하기 위해서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

우리는 담대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실로(=분명히), 그가 그의 몸에 채찍을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

우리가 우리의 죄를 더 이상 담당할 필요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지고 가셨던 것을 확실히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예수님께서 우리의 병약함과 질병 그리고 고통을 지고 가셨다는 것을 확실히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의 대속자이신 예수님

주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구속사역을 하심으로 우리의 대속자가 되셨습니다. 그는 우리를 대신하셨습니다. 우리의 대속자로서 그 분은 우리의 죄를 담당하

셨을 뿐 아니라 또한 죄의 결과들도 담당하셨습니다.

벧전 2:24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채찍에 맞으셨습니다.

마 27:26b ...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박히게 넘겨 주니라

예수님께서서는 채찍에 맞아 그의 등이 갈기 갈기 찢어지는 극도의 고통을 수반하며, 우리의 대속자가 되셨습니다. 그는 우리의 병약함과 질병의 고통을 지셨습니다.

우리를 대신한 예수님의 구속 사역은 우리 죄에 따른 형벌의 값을 치렀을 뿐 아니라 또한 그 죄로 인한 육체적인 결과를 질 필요가 없도록 우리를 자유케 하였습니다.

병 치유 - 구속의 일부분

➡ **구속의 충만한 계시는 다음 두 가지를 제공합니다.**

-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은 영원한 구원**
- **우리의 치료자이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은 몸의 치유**

그리스도인 들이 병 고침이 타락한 인류를 위한 하나님의 구속의 일 부분이라는 것을 깨닫는 것은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의 값을 지불하셨습니다. 그는 또한 병 고침의 값도 지불하셨습니다. 인류가 온전한 - 정신적, 육체적, 감정적 - 건강을 누리는 것은 하나님의 의도하신 바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의 준비하심 들의 유익을 충분히 누리기 위해서는 이것들을 알아야 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 들여야만 합니다.

믿음 대(對) 느낌들

느낌에 의지

병 고침을 받아들이는데 가로막는 주요한 한 방해물은 느낌들에 의존하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병 고침 받는 것을 보면 우리의 믿음이 풀려 나옵니다. 그러

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병 고침을 위한 믿음의 기초는 하나님 말씀이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이 무엇이라 말씀하는지 알아야만 합니다.

이사야로 돌아가면,

사 53:1a 우리의 전한 것을 누가 믿었뇨?

이는 우리 모두가 스스로 대답해야 할 필요가 있는 질문입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지?

➡ **나에게 선택권이 있습니다.**

➤ **나는 의사가 전한 바를 믿을 것인가?**

하나님께서 전하신 바를 믿을 것인가?

➤ **나는 나의 전통을 믿을 것인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내 영에 계시한 바를 믿을 것인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레마의 말씀을 받을 때, 믿음이 우리의 영 속에 감자기 생겨 납니다. 의사의 전한 바와 우리의 전통들, 느낌들, 또는 과거의 경험과는 상관없이 믿음이 생겨나, 하나님께서 전하신 바를 믿게 됩니다.

느낌에 의지한 믿음과 하나님 말씀에 의지한 믿음 사이의 차이를 우리는 아래의 대조 도표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전통적인 반응답변	믿음에 의한 답변
질문: 당신은 구원을 받았습니까? 대답: 예! 그렇습니다. 질문: 당신은 그것을 어떻게 압니까? 대답: 성경이 내가 구원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질문: 당신은 구원을 받았습니까? 대답: 예! 그렇습니다. 질문: 당신은 그것을 어떻게 압니까? 대답: 성경이 내가 구원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질문: 당신은 병 고침을 받았습니까? 대답: 아닙니다! 질문: 당신은 그것을 어떻게 압니까? 대답: 여전히 통증을 느끼니까요!	질문: 당신은 병 고침을 받았습니까? 대답: 예! 그렇습니다. 질문: 당신은 그것을 어떻게 압니까? 대답: 성경이 내가 병 고침을 받았다고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믿음을 통한 병 고침

병 고침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믿고, 그리고 나서 행동으로 옮겨 놓을 때 우리는 고침을 받습니다.

바울이 기록하기를,

롬 3:3-4a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미쁘심을 폐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하나님은 미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병 고침에 대한 그분의 약속을 이행할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병 고침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단지 해야 할 일은 믿는 것입니다!

- “그가 상함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도다!(완료형)”
- “그가 상함으로 우리는 나왔다!(현재)”

➤ 나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나는 내가 구원 받았다는 것을 때때로 느끼지 못합니다 -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 때문에 내가 구원 받았다는 것을 압니다.”

요일 5:13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 나는 병 고침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나는 내가 병 고침을 받았다는 것을 때때로 느끼지 못합니다 -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 때문에 내가 구원 받았다는 것을 압니다.”

사 53:5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우리가 보는 것이나 느끼는 것에 상관없이 정당하게 우리의 것이 된 바를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불신으로 인해 우리

의 병 고침을 훔쳐가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묻기를,

➤ “모든 사람들이 병 고침 받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왜 모든 사람들이 병 고침을 받지 못하지 않느냐?”

우리는 또한 이런 질문을 할지도 모릅니다.

➤ “모든 사람들이 구원 받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왜 모든 사람들이 구원 받지 못하지 않느냐?”

두 질문들에 대한 대답은 다음과 같습니다.

➤ 그들은 믿어야만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믿음으로 병 고침을 받습니다.

사도들은 믿었습니다 - 병 고침이 구속의 일부분임을

사도들이 병 고침이 그들 구속의 일부분임을 믿었다는 것은 병든 자들을 고친 그들의 행동과 성령에 감동을 입어 보고하여 쓴 글을 볼 때 분명합니다.

마태는 믿었습니다

마태는 이사야가 예언한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전하신 바를 믿었습니다.

마 8:16-17 저물때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 내시고 병든 자를 다 고치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로 하신 말씀에 우리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이사야 53 장 4 절은 병든 그들 모두를 고치시는 예수님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성취될 수 있었습니다. 여기서 “모두”는 오늘날 우리의 각자 각자를 포함합니다.

베드로는 믿었습니다.

베드로는 이사야가 예언한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전하신 바를 믿었습니다.

벧전 2:24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

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이땅을 떠나신 후 첫 사람을 고쳤을 때, 하나님께서 전하신 바를 믿었습니다.

행 3:6 베드로가 가로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네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하고

얇은땀이처럼, 우리도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 진실임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 더 확실한

베드로는 하나님의 전하신 바를 믿었을 뿐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그가 경험하거나 느낄 수 있는 어떤 다른 것보다도 더 확실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벧후 1:19a 또 우리에게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 항상 있는

베드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영구적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지금 우리의 삶 속에서 살아있고, 유효한 말씀입니다.

벧전 1:23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 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나는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보면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 베드로 전서 2 장 24 절 말씀에 따라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면,
- 이사야 53 장 5 절 말씀에 따라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면,
- 그러면 우리는 나음을 입은 것입니다!

나의 전통들과 나의 종교적 지도자들이 나에게 다르게 말할지라도, 혹은 내가 비춰지는 모습과 내가 느끼는 방식과 비교해 다를지라도 우리가 나음을 얻기 위해 필요한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전하신 바를 단지 믿는 것입니다!

- 나는 믿음으로 나의 병 고침을 받아야만 합니다
- 나는 나의 믿음을 말하고, 나의 믿음을 행동으로 옮겨놓기 시작해야 합니다

다!

- 나의 믿음이 세워지면서, 나는 그 믿음을 능동적으로 풀어 놓을 것입니다. 그리고 담대히 나의 믿음을 행동으로 옮겨놓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리고 병 고침을 받을 것입니다.
- 앓은뱅이의 경우와 같이, 나의 증상들은 지속적이거나 아니면 즉각적으로 사라질 것입니다. 나도 또한 걸을 것이며, 경충 경충 뛰며 하나님을 찬양할 것입니다.

믿을 것입니까?

당신은 이사야가 전한 바를 믿을 것입니까?

지금 이 하나님으로부터 병 고침을 받을 때입니다. 당신은 바로 지금 당신의 병 고침의 나타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호들(names) 중의 하나인 여호와-라파에서, 그리고 우리를 대신하여 당하신 예수님의 고난과, 이사야의 예언, 그리고 사도들의 간증으로부터 병 고침이 우리의 삶을 위한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의 계획중 중요한 일부분임을 알았습니다.

- ➡ **우리의 몸이 무엇을 느끼는 것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은 다음과 같이 선포합니다,
“체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

이 계시가 여러분의 영속으로 뛰어 들어가는 순간, 여러분의 병이 명백하게 고침을 받았다는 믿음이(여기서는 ‘병 고침의 나타남을 받아들이는 믿음’으로 기술하고 있음) 올 것입니다. 담대하게 선포하십시오, “그가 체찍에 맞음으로 나는 나음을 입었다!” 당당한 기대감을 가지고 여러분의 몸을 살펴보기 시작하십시오. 여러분이 이전에 할 수 없었던 것들을 해 보십시오. 믿음의 담대한 행동으로 옮겨가십시오. 여러분의 병 고침이 나타남을 인하여 하나님께 찬양하기 시작하십시오!

주의: 이 과에서 가르침을 받은 계시는 우리 몸의 증상에 관계없이 거의 2000 년 전에,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지금이나 혹은 미래의 어느 시점에 병 고침을 받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병 고침이 바로 지금 우리의 몸에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 진리입니다. 이 연구과정 중에서 우리는 이 진리를 자주 “우리의 병 고침의 나타남”이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나타남’이라는 말은 시각이나 또는 이해면에서 매우 분명하다거나 혹은 숨겨진 어떤 것이 드러난다”는 것으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문 제

1. 병 고침과 관련하여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과 맺은 언약은 무엇입니까? 이것이 왜 중요합니까?
2. 이사야 53 장에서 발견되는 병 고침에 관한 계시를 당신의 말로 설명하십시오.
3. 당신 몸의 증상들과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발견되는 진리의 계시와 일치되지 않을 경우 하나님께서 당신이 취하기를 원하시는 믿음의 과정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제 3 과

예수 - 우리의 모범

인간으로 오셨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하나님으로서의 그분의 권리들을 잠시 내려 놓으셨다는 것을 이해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그는 마지막 아담으로서, 인자(the Son of Man)로서 오셨습니다. 지상에서 그분이 하셨던 모든 일들은 첫번째 아담이 그렇게 하도록 창조되었던 모습대로 행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성령의 은사들으로써 행하셨습니다. 오늘날 신자들도 그와 똑같이 행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사람으로서 오신 예수님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기술하였습니다.

빌 2:7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예수님의 첫 번째 두 기적들

물을 포도주로 바꾸심

▶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예수님께서 행하신 첫번째 기적은 혼인 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킨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인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그들에게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말한 후, 하인들에게 매우 중요한 말을 하였습니다.

요 2:5b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님의 기적을 경험하려면,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아무리 어리석게 들릴지 모르지만 그것과는 상관없이 즉각적으로 순종해야만 합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이렇게 할 때 성령께서 우리를 통해 역사하십니다.

하인들은 예수님께 순종하였습니다; 하인들은 항아리 아구까지 물을 채웠습니다. 그들은 계속적으로 예수님께 순종하였습니다. 그 물을 떠다가 연회장에게 갖다 주었습니다. 연회장은 그것을 맛본 후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예수님께서 하인들에게 물을 떠 다가, 그것을(그 물을)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고 말씀하셨을 때, 당사자인 하인들이 의심을 품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였을 것입니다. 그 하인들은 순종하기 시작하였을 뿐 아니라 어려웠을 때에도! 계속해서 순종하였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기적을 경험하려면, 우리도 또한 이렇게 말해야만 합니다. “예수님께서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나는 그대로 하리라!”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침

➡ **병 고침은 예수님의 두 번째 기적이었습니다.!**

왕의 신하가 예수님께서 혼인 잔치에서 행하신 기적에 대해 들었습니다. 들은 믿음을 가져왔고, 그 믿음의 결과로 그의 죽어가던 아들이 살아났습니다.

요 4:46~51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에 오심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 주소서 하니 저가 거의 죽게 되었음이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신하가 가로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가라 네 아들이 살았다.” 하신대

그 사람이 예수의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았다!” 하거늘

그 사람은 예수님께 자신의 아들을 자신의 방법으로 고쳐달라고 설득했지만 실패하였습니다. 그는 예수님께서 오셔서 자신의 아들을 고쳐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러나 그대신 그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을 때, 병 고침의 기적을 받았습니다.

많은 이들이 예수님으로 하여금 자신들이 바라는 생각이나 행동을 취하도록 하려 했기 때문에 기적을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에 믿음을 두기 보다는, 그들은 어떤 사람이 어떠한 방법으로 그들을 위해 기도해

준다면 병 고침 받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분이 하신 말씀을 믿으며,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순종한다면, 하인들과 왕의 신하처럼 우리도 또한 기적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이를 위해 오셨습니다

자유케 하시려고!

예수님께서서는 포로된 자들에게 자유를 전파하며, 눌린 자들을 자유하게 하기 위해 성령의 기름부음을 받았습니다. 질병과 병약함의 속박을 포함한 모든 결박들은 하나님의 뜻일 수 없습니다. 성령의 기름부음은 병 고침과 자유토록 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눅 4:18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셔서, 내게 기름을 부으셨으니

이는(=왜냐하면)

-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 나를 보내사**
- 마음이 상한 자에게 고침을,
-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 눌린 자를 자유케 하게 하기 위해서

모든 멍에를 꺾으시려고

이사야는 예수님께서 눌린 자들을 자유하게 할 것이라고 예수님의 사역에 관해서 예언하였습니다.

사 58:6 나의 기뻐하는 금식은:

-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 멍에의 줄을 풀러주며,
-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케 하며,
-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사탄의 일을 멸하시려고

요한에 따르면,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는

요일 3:8b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풍성한 생명을 주시려고

마귀의 일을 멸하심으로, 예수님께서서는 그의 백성들에게 풍성한 생명을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요 10:10b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병든 자, 모두를 고치기 위해서

예수님의 병 고침의 사역에 관한 성경적인 강조점은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왔던 자들 모두를 고쳐주셨다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구원과 병 고침을 묘사하는 어떤 용어들이 있습니다. 병 고침을 받은 사람들을 묘사하는 용어들은 거듭나야 할 사람들을 묘사하는 용어들과 유사합니다.

구원을 위함:

*다 (All)

*누구든지 (Whoever)

병 고침을 위함:

*다 (All)

*일일이 (Each one)

➡ **병 고침은 모든 이들을 위한 것임을 보여주는 성경 구절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성경 구절들을 읽을 때, 모두(every), 다(all) 라는 용어들의 강조점을 살펴보게 됩니다.**

➤ 모두(every)

마 9:35 예수께서 모든 성과 촌에 두루 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 다(As many)

마 14:36 다만 예수의 옷가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나음을 얻으니라.

➤ 다(All)

마 12:15 예수께서 아시고 거기를 떠나가시니 사람이 많이 좃는지라 예수께서 저희 병을 다 고치시고.

➤ 다(All)

마 8:16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 내시고 병든 자를 다 고치시니

➤ 모든(All)

눅 6:19 온 무리가 예수를 만지려고 힘쓰니 이는 능력이 예

수께로 나서 모든 사람을 낮게 함이러라

➤ 모든(All)

행 10:38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붓듯 하셨으매 저가 두루 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그는 변하지 않으셨음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님께서 변하지 않으셨다고 적고있습니다; 그 분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동일하신 분이십니다.

히 13: 8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셨을 동안 병든 자들을 고치셨다면, 그 분은 오늘날에도 병든 자들을 고치십니다! 믿음으로 그 분께 나오는 자는 누구나 병 고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지상 대 위임명령(The Great Commission)을 주셨습니다

마지막 가르침들

승천하시기 직전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마지막 가르침들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지상 대 위임명령* 이라고 부릅니다. 예수님께서 그를 믿는 자들에게 마지막으로 하신 그의 중요한 말씀을 마가 복음은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막 16:15~19 또 가라사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 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리우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이것은 대 제안(great suggestion)이 아니라 명령(command)입니다.

예수, 우리의 모범

많은 사람들이 병 고침과 기적 행하심의 사역에 있어서 예수님이 우리의 모범이라는 것을 믿는데 어려움을 가집니다. 그들은 이들 초자연적인 나타남의 모두는 하나님께의 아들로서 지닌 그분의 능력 때문이라고 추론합니다. 사실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의 아들로서 그분의 권리들을 잠시 내려놓으셨고, 사람으로서, 즉 마지막 아담으로서 살고, 사역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유일무이하게 우리의 모범으로 자격을 가지셨습니다. 예수님은 여전히 분명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인자(the Son of Man)로서 이 땅에서 사시며, 사역하셨습니다.

요단 강에서 세례 받으시고, 성령께서 예수님에게 임하시기 전에는 그분의 삶 속에 어떤 기적이 나타났다는 기록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성령의 초자연적인 은사의 작동과 성령의 능력으로 행하여진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도 성령-세례(침례)를 받은 신자로서 살고, 사역을 해야 되겠습니다.

▶ 성령으로 기름부음을 받음

성령께서 자신에게 기름을 부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눅 4:18-19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 세 가지 중요한 영역들

➡ 예수님의 사역은 다음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 ▶ 가르침
- ▶ 복음전파
- ▶ 병 고침과 자유케 하심(deliverance)

마 9:35 예수께서 모든 성과 촌에 두루 다니사,

-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 국한된

예수님의 사역은 한번에 한 마을이나 한 도시로 국한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도시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 그곳에 가시는 것은 불가능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추수를 위해 다른 이들을 일꾼으로 보내달라고 기도하도록 가르쳤습니다.

마 9:36~38 무리를 보시고 민망히 여기시니 이는 저희가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유리함이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은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어 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다른 이들에게 위임하셨습니다

제자들

예수님의 초자연적인 사역은 예수님께서 열 두 제자들에게 위임하셨을 때 배가 되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보여주셨던 바와 똑같은 사역을 하도록 되었습니다.

마 10:1, 7, 8 예수께서 그 열두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왔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문둥이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 새롭게 위임을 받은 제자들은 다음과 같은 일들을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 복음을 전파하고,
- 병든 자들을 고치고,
- 문둥병자들을 고치고,
- 죽은 자들을 일으키고,
- 귀신들을 쫓아내는

그들은 예수님께서 하신 것처럼 동일한 사랑과 동정으로 그리고 자연스럽게 이 일들을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70 인

열 두 제자들이 위임받아 경험을 쌓아 자란 후에, 예수님께서 칠 십 명을

파송하셨습니다.

눅 10:1, 9 이후에 주께서 달리 칠십 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동 각처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거기 있는 병자들을 고치고 또 말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하라

➡ **그 위임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 칠십 명은 다음과 같은 일들을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 **병든 자들을 고치고**
-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

그 사역은 팽창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자신을 열 두 제자들의 삶 속에 그대로 옮겨 놓았습니다(duplicated). 분명 그들은 여전히 배워야 할 것들이 여전히 많이 남아 있

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라고 있었습니다. 아주 중요한 사항은 그들은 예수님께 순종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그들은 큰 기적들과 기쁨 그리고 승리를 경험했습니다.

눅 10:17a 칠십 인이 기뻐 돌아와...

모든 믿는 자들

지상 대 위임 명령의 가르침으로 예수님께서서는 모든 믿는 자들을 파송하셨습니다. 거듭난 모든 신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행하여야 하는 동일한 위임을 받았습니다.

막 16:15, 17, 18 또 가라사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 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제자들이 죽었을 때, 병 고침이 멈추었습니까?

아닙니다, 지상 대 위임명령은 단지 초대 교회 사도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믿는 자들”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 때나 지금이나 믿는 자들은 온 열방에

계속해서 병 고침을 가져 다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오늘날 믿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자이며 치료자이심을 가르치고, 전파해야 합니다. 믿는 자들이 진리를 가르칠 때, 병 고침을 받아들이는 믿음과 병 고치는 사역이 풀려나올 것입니다.

➡ **믿는 자들은 다음과 같은 일을 하도록 보내심을 받았습니다.**

- **가서 전하도록**
- **귀신들을 쫓아내도록**
- **새 방언을 말하도록**
- **병든 자에게 손을 얹도록**

믿는 모든 자들은 (단지 사도들, 선지자들, 복음 전파자들, 목사들과 교사들만이 아니라) 병든 자들에게 그들의 손을 얹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들은 나을 것입니다.

모든 믿는 자들은 매일의 삶 속에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모든 일들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요 14:12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 니라.

모든 믿는 자들은 주님이 자신들과 함께 일하실 것을 기대하면서 복음을 나누어야 하며, 그에 따르는 표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확실히 증거 해야겠습니다.

막 16:20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새 주께서 함께 역사하시라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거하시니라)

성령에 의해 무장된 믿는 자들은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자신의 도시에서 시작해야 합니다. 그리고 난 뒤 또한 열방으로 나가야 합니다.

행 1:8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마 24:14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인류에게 구속함을 가져다 주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구속함은 병 고침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그 분 단독으로 사역을 하실 때 병 고침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난후 제자들을 훈련시키고, 위임하는 과정을 통해 배가 시키셨습니다. 이 과정은 계속되어 우리까지 이르렀습니다. 믿는 자로서 우리는 잃어버렸고, 죽어가는 세상으로 복음을 가지고 가도록 위임 받았습니다. 모든 믿는 자들은 예수님께서 하신 똑같은 일들을 계속해서 수행해야 합니다.

초대교회 지도자들은 병 고침을 계속했습니다

예수께서 승천하신 후, 병 고침이 멈추었습니까? 아닙니다, 제자들은 복음을 전파하고 병든 자들을 고치는 것을 계속하였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베드로와 빌립과 그리고 바울의 예를 보려고 합니다.

베드로

베드로는 앓은뱅이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는 치료함을 받았습니다.

행 3:1-8 제구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앓은뱅이 된 자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 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으로 더불어 주목하여 가로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저희에게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가로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네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 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미하니

빌립

후에 복음 전파자가 된 집사인 빌립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전하였습니다. 그리고 병 고침의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행 8:5-8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일심으로 그의 말하는 것을 좃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

풍병자와 앓은뱅이가 나오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바울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앓은뱅이에게 전하였습니다. 그 사람은 고침을 받았습니다.

행 14:8-10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있어 앓았는데 나면서 앓은뱅이 되어 걸어 본 적이 없는 자라 바울의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 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 가로되 “네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뛰어 걷는지라.

행 28:8-9 보블리오의 부친이 열병과 이질에 걸려 누웠거늘 바울이 들어가서 기도하고 그에게 안수하여 낮게 하매 이러므로 섬 가운데 다른 병든 사람들이 와서 고침을 받고

우리는 위의 성경 구절들을 통해 볼 때, 초대 교회 지도자들이 병 고침의 사역을 행하였음을 결론 내릴 수 있습니다.

병 고침은 복음전파의 문을 엽니다

병 고침은 구원 받지 못한 사람들과 복음을 나눌 수 있는 기회들을 제공해 줍니다. 개인이 복음에 반응을 나타내기 전에, 우리는 먼저 그들의 관심을 끌어야 합니다. 고통과 심장병이 만연한 이 세상에서 병 고침은 관심을 확보할 뿐 아니라 하나님 말씀의 확실성을 신속히 확증시켜 줍니다.

부활 후에 온 기적

부활 후 있는 첫 복음 전도 집회는 병 고침으로 시작되었습니다. 미문(美門)에서의 앓은뱅이를 향한 기적적인 병 고침은 오 천명이 구원 받도록 하는 문을 열어 놓았습니다.

행 3:8-11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미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및 하나님을 찬미함을 보고 그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의 당한 일을 인하여 심히 기이히 여기며 놀라니라.

나온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 나아

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칭하는 행각에 모이거늘

행 4:4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오천이나 되
었더라.

베드로와 요한의 행동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그들은 정상적인 활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 기적은 교회
밖에서 일어 났습니다.
- 그들은 그 사람을 주목하였고, 말을 건넸습니다. 그들이 먼저 병 고침을
시행하려고 하였습니다.
- 돈에 대한 우선적인 필요 때문에 병 고침을 뒤로 미루지 않았습니다.
- 그들은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것들 - 하나님의 말씀과 예 수 이름의 능력
- 을 주었습니다.

방법은 변하지 않았음!

세상에 이르는 방법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사역하셨습니다:

- 가르침
- 복음전파
- 병 고침

열 두 명의 제자들도 다음과 같은 일을 하기 위해 보내심을 받았습니다:

- 복음전파
- 병 고침
- 깨끗케 하심
- 죽은 자를 살리기 위해
- 귀신들을 내쫓기 위해

칠 십 명의 제자들도 다음과 같은 일을 하기 위해 보내심을 받았습니다:

- 병든 자들을 고치기 위해
-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다.”는 것을 말하기 위해

우리도 다음과 같은 일을 하기 위해 위임을 받았습니다:

- 가서 복음을 전파하도록
- 귀신들을 쫓아 내도록
- 새 방언을 말하도록
- 병든 자에게 손을 얹도록
- 귀신들을 내쫓기 위해

↳ 병 고침은 믿는 자들이 사용 가능한 것일 뿐만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구원 받지 못한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이 진실임을 알도록 하고, 그래서 그들이 구원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우리가 병 고침의 사역 하기를 원하십니다!

문 제

1. 예수님의 첫 번째 두 가지의 기적에서 우리가 배우게 되는 중요한 점들은 무엇입니까?
2. 마가 복음에 기록된 지상 대 위임명령은 무엇입니까? (제발 암기하십시오)
3. 예수님께서 세상에 이르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방법은 무엇이어야 합니까? 그 이유는?

제 4 과

성령과 그분의 권능

사도 바울은 이렇게 기술하였습니다.

고전 2:4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지혜의 권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분명 우리는 사도 바울이 가졌던 바로 그 하나님의 능력을 필요로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삶에서의 병 고치는 능력

예수님께서 요단 강에서 세례(=침례)를 받으셨을 때, 그 때 성령께서 예수님께 임하셨고 그 후에 즉시 성령의 능력이 그분의 사역 속에서 나타나기 시작하였습니다.

예수님 안에 있던 그 능력은 병 고침이 필요한 사람들이 믿음으로 예수님께 손을 대었거나, 혹은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손을 대셨을 때 병 고침이 필요한 사람들의 몸 속에 전달되었습니다. 20 년 동안 혈루증으로 고통을 받았던 여인의 이야기는 이러한 권능의 한 예입니다.

누가 나에게 손을 대었느냐?

막 5:25-34 열두 해를 혈루증으로 앓는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원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있던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섞여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얻으리라 함일러라.”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르매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여짜오되, “우리가 예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예수께서 이 일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 보시니 여자가 제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짜온대 예수께서 가라사대, “딸아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네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예수님으로부터 흘러나왔던 그 권능은 너무나 실제적이고, 만질 수 있는 것이었기에 예수님께서 걸음을 멈추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능력(=두나미스)

30 절의 “능력”으로 번역된 단어는 헬라어로 하나님의 능력을 의미하는 “두나미스”입니다. “두나미스”라는 단어는 헬라어에서 가장 폭발적인 능력을 표현하는 최상의 단어입니다. 실제로 우리는 이 단어를 잘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다이나믹’ 이라던가 ‘다이나모(=힘, 동력)’, 그리고 ‘다이너마이트’라는 영어가 여기에서 파생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동일한 헬라어 단어가 여러 번 사용되고 있습니다.

눅 4:14 예수께서 성령의 권능으로 갈릴리에 들어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예수님께서 이 권능이 자신으로부터 나간 것을 아셨습니다. 그것은 손을 댄으로써 옮겨졌던 만져서 알 수 있는, 강력한 힘이었습니다. 손을 대는 것은 접촉점입니다.

눅 6:19 온 무리가 예수를 만지려고 힘쓰니 이는 능력이 예수께로 나서 모든 사람을 낫게 함이러라

이 병 고치는 권능은 예수님께서 세례 받을 때, 예수님에게 임하였습니다. 요한은 이 권능을 증거하였습니다.

요 1:32 요한이 또 증거하여 가로되, “내가 보매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서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다른 기름 부으심들

예수께서 성령의 권능으로 사역하셨을 때, 다른 기름 부으심 들 가운데서 사역하였습니다. 예를 들어, 복음을 전파하시고, 말씀을 가르치실 때는 귀신들을 쫓고, 병든 자들을 고치기 위한 기름 부으심 과는 다른 기름 부으심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치시고 계실 때, 병든 자들을 고치기 위해서 기름 부음을 받는 장면을 우리는 누가 복음에서 보게 됩니다.

눅 5:17 하루는 가르치실 때에 갈릴리 각 촌과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나온 바리새인과 교법사들이 앉았는데,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나타났더라. (예수와 함께 하더라.)

우리도 또한 순간 순간의 기름 부으심 안에서 움직이는 것을 배워야만 합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합니다.

요 5:19 그러므로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의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병 고치는 능력과 사도 바울

두나미스 권능

‘두나미스’라는 헬라어 단어는 바울이 그의 사역에서 성령과 능력의 나타남에 관하여 기술하였을 때, 그 능력을 설명할 때 또한 사용된 단어입니다.

고전 2:4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지혜의 권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두나미스)으로 하여

사도 바울도 성령의 능력(=두나미스의 권능)으로 사역하셨던 예수님처럼 그와 똑같은 능력으로 사역했습니다.

우리는 바울의 사역에서, 즉 바울이 병든 자들에게 손을 얹고, 심지어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이용해 이 권능을 전달함으로 이 두나미스의 권능이 나타나는 많은 예들을 사도행전에서 발견합니다.

행 19:11,12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희한한 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귀도 나가더라.

우리의 예

이 예로부터 우리는 몇 가지 교훈을 배울 수 있습니다.

- 하나님의 병 고치는 능력은 너무나 실제적이고, 만질 수 있는 것이기에 천을 통해 전달될 수 있다.
- 이러한 병 고침의 수단인 바울이 직접 갈 수 없거나, 혹은 환자들을 바울에게 데려올 수 없었을 때 바울에 의해 사용될 수 있었다.
- 그 천은 믿음을 풀어놓기 위한 접촉점이었다.
- 그것은 마치 바울이 직접 와서 그들에게 안수하는 것과 똑 같은 효과를 내었다.
- 그의 사역에서 바울은 하나님의 병 고치는 다이너마이트적 권능을 가지고 사역하였다.

예수님처럼, 바울은 그의 삶 속에 역사하는 성령의 병 고치는 능력을 가지고 있었고, 믿음으로 사람들은 병 고침을 받았다.

성령세례(=성령침례) 받은 신자들 속에 있는 병 고치는 능력

우리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많은 이들이 “나는 이 다이너마이트적 능력이 예수님 손에 있었음을 압니다. 그리고 나는 이 다이너마이트적 능력이 위대한 사도 바울 손에 있었다는 것을 압니다. 그러나, 그것이 오늘날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나는 단지 평범한 신자일 따름입니다. 어떻게 그와 똑같은 권능이 나의 삶과 사역 속에서 나타날 것이라고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말합니다.

이런 전형적인 질문들에 대한 답변으로, 사도 행전에 기록된 예수님의 고별 말씀으로 가 볼까 합니다.

행 1:8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곳에 쓰인 ‘권능’이라는 단어는 예수님과 바울 속에 있던 병 고치는 능력을 설명할 때, 사용되었던 ‘두나미스’ 라는 단어와 똑 같은 단어입니다. 성령세례 받은 신자들로서 우리는 그들 속에 있었던 정확히 그와 똑같은 권능을 우리 속에 소유하고 있습니다.

‘두나미스’의 권능은 우리가 그 병 고치는 능력을 다른 이들에게 흘러 가도록 하며, 증인이 될 때 풀려나올 것입니다. 우리가 병든 자들을 치료하는 통로가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확증하여 주실 때, 우리는 복

음을 가지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는 효과적인 증인이 될 것입니다.

위대한 능력

사도 행전에서 그랬듯이, 우리는 예수님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 위대한 능력을 소유할 것입니다.

행 4:33 사도들이 큰 권능(=두나미스)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얻어

행 6:8 스테반이 은혜와 권능(=두나미스)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우리를 위해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위대한 일들을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의 권능으로 가능합니다.

측량할 수 없는 위대한 능력

성령세례 받은 신자들 중 많은 이들이 반복적으로 그리고 빈번히 더 많은 능력을 보내 주시도록 하나님께 요청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요구에 응답하사, 우리가 이미 받은 것들보다 더 많은 능력을 보내 주신다면, 아마도 우리는 폭발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우리 속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다이너마이트적 능력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우리들 모두 한 사람, 한 사람은 “걸어 다니는 다이너마이트 막대기!”입니다.

엡 3:20 우리 가운데서(안에서) 역사하시는 능력(=두나미스)대로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병 고침을 경험하기 위해, 우리는 성령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이미 내재하고 있는 병 고치는 능력을 믿음으로 풀어 놓기 보다는 병을 고치는 하나님의 능력을 위로부터 보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기 때문에 우리는 간절히 원하는 병 고침을 경험하는데 너무도 자주 실패하여 왔습니다.

흘러가도록 하라

요 7: 38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하나님께서서는 사람을 차별 대우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사도 바울이 소유한 바와 똑같은 권능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성령세례를 받을 때, 우리 안에 내재해 있습니다. 병 고치는 능력은 성령의 능력입니다.

분명히 밝혀 두는 바

많은 거짓 종교들은 사람의 영 속에 있는 능력에 대해 가르치고, 그것을 사람의 영에 관련시킵니다.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권능을 얘기할 때는 성령과 예수의 이름으로 혹은 예수의 이름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우리 자신이나 다른 이들의 병 고침에 대해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내주(內住)하심과 예수 이름의 권세 없이는 우리는 우리 속에 있는 것으로는 아무 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의 권능을 받음

성령 세례는 모든 믿는 자들에게 약속되었습니다.

행 1:4-5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희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믿는 자들은 예수님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는 권능을 받아야 합니다. 기사와 표적과 병 고치는 기적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확실함을 나타내 보여줄 수 있는 권능을 말입니다.

행 1:8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유대인들

예루살렘 신자들이 오순절 날 성령으로 세례를 받았을 때, 제일 먼저 이 권능을 받았습니다.

행 2:1-4 오순절날이 이미 이르매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홀연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이방인들

가이사라 지방의 이방인들이 이 권능을 받은 첫번째 이방인들이었습니다.

행 10:44~46a 베드로가 이 말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 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 주심을 인하여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라.

그리고 나서 에베소 신자들이 이 권능을 받았습니다.

행 19:2~6 가로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가로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있음도 듣지 못하였노라.”

바울이 가로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로라.”

바울이 가로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저희가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므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권능으로 사역함

질그릇

우리는 성령의 보배를 담고 있는 질그릇입니다. 기적적인 병 고치는 우리의 능력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 속에 있는 하나님의 능력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고후 4:7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의 심히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미 3:8a 오직 나는 여호와와 의 신으로 말미암아 권능과 공의로 재능으로 채움을 얻고...

성령의 권능을 부여받음

병 고치는 은사로 사역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반드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하고, 성령에 의해 권능을 부여 받아야 합니다. 우리 자신의 힘만으로는 우

리는 실패할 것입니다.

속 4:6 그가 내게 일러 가로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부활의 능력

믿는 자들의 손들을 통하여 흘러나가는 이러한 성령의 병 고치는 능력은 예수를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린 능력과 같은 능력입니다.

엡 1:19~20 그의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서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행 4:33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얻어

행 5:12a 사도들의 손으로 민간에 표적과 기사가 많이 되매

하나님 말씀을 확증함

사도행전은 초대 교회 신자들이 사역할 때의 성령의 나타남과 하나님의 권능에 관한 진술을 다시 들려줍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고전 2:4~5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지혜의 권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사도 바울의 가르침과 그의 복음 전파사역에 있어서 사역의 효과는 논리적인 논쟁이나 인간의 지혜로 설득하는 능력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사역의 효과는 자신 속에 있던 하나님의 놀랄만한 능력을 병 고침이나 영적 자유함이 필요한 사람들의 몸 속으로 흘러 가도록 풀어 놓음으로써 나타내 보였기 때문이었습니다.

바울이 전했던 복음의 말씀은 이들 강력한 나타남을 통해서 확증되었고, 믿음이 그들에게 임했습니다.

막 16:20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새 주께서 함께 역사하시 그 따르는 표적

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거하시니라)

능력을 부인함

오늘날 많은 기독교인들은 그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합니다. 그 이유는 올바르게 가르침을 받지 못했거나 또는 틀리게 가르침을 받아 왔고 그리고 그들이 성령의 능력을 부인하기 때문입니다.

딤후 3:5a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우리를 위해

예수님과 사도들 안에 있었던 그 똑같은 권능이 성령 세례를 통해 우리에게 임했습니다. 우리의 부족한 믿음이든가 혹은 예수님께 대한 헌신의 부족으로 인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해 단지 제한을 받습니다.

우리는 위로부터 권능을 부여 받았습니다!

성령의 인도함

하나님 아버지께 의해 인도함을 받으신 예수님

진정한 병 고침은 항상 성령의 능력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하여 시행됩니다. 그러나 빈번하게도 사람들은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 병 고치는 능력을 받지 않습니다. 다른 과에서 이에 대해 좀 더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모든 이들(all)”, “각 사람(every)”, “모두(as many)”를 고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서는 아버지께서 하시는 바를 보았고, 그 본 것을 단지 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요 5:19~20, 30 그러므로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의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의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기이히 여기게 하시리라.”

“내가 아무 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원대로 하려 하지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원대로 하려는 고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30 절에서, 예수님께서서는 예수님 자신의 뜻을 구하기 보다는 오히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구하고 계심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령님께 인도함을 받으신 예수님

요한 복음에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병 고치는 사역을 행하셨을 때,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으셨음을 보게 됩니다. 아래 의 예를 보면, 병 고침이 필요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서는 성령님께 민감하게 반응하셔서, 어떤 한 사람에게 인도되었습니다.

요 5:1-9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있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 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테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다섯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소경, 절뚝발이, 혈기마른 자들이 누워 (물의 동함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동하게 하는데 동한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됨이러라) 거기 삼십팔 년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네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동할 때에 나를 못에 넣어 줄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 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예수님처럼 우리도 우리가 병 고치의 사역을 행할 때, 성령의 인도하심에 민감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서 “어떤 한 사람”에게 인도되었던 것과 꼭 같이, 우리가 우리의 일상적인 삶을 살아갈 때, 성령님께서서는 우리를 기꺼이 병 고침을 받아 들이도록 준비가 된 그 사람에게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믿음으로 풀려나오는 병 고치는 능력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질문 해 왔습니다. “만일 내 속에 이 모든 다이너마이트 권능을 내가 소유하고 있다면, 왜 저의 삶 속에서 더 많은 기적들을 경험하지 못합니까?” 우리는 성령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법을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성령님의 다이너마이트 권능을 우리를 통해서 병든 자들의 몸 속으로 흘러 들어갈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믿음의 스위치를 키는 법을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믿음의 스위치

이러한 예는 오늘날, 도시나 빌딩에 있는 전력 시스템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강력한 발전기들(dynamos)에 의해 생성된 높은 전압의 전기는 수 많은 빌

당 속으로 연결된 전선을 따라 보급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위치해 있는 전등까지 이르게 됩니다.

우리가 우리 주위에 그 모든 전력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빛이 방을 가득 채우게 하기 위해 누군가가 스위치를 켜 전력을 흘려가도록 하지 않는다면 단지 캄캄함 속에서 앉아 있을 뿐일 것입니다. 믿음은 그 스위치와 같은 것입니다.

예수님께서서는 병 고치는 기적을 위한 열쇠를 ‘유출병을 가진 여인의 사건’으로 밝히 드러내셨습니다.

막 5:34 예수께서 가라사대, “딸아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네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예수님 안에 있는 다이내마이트 권능이 그녀의 몸 속으로 흘러 들어가도록 풀어 놓은 것은 그녀의 믿음이었습니다.

믿음은 항상 하나님의 권능이 흘러 가도록 하는 스위치였습니다. 그 스위치는 병 고침이 필요한 당사자의 믿음일 수 있고, 당사자와 함께 한 다른 사람들의 믿음 혹은 병 고침을 시행하는 사람의 믿음일 수 있습니다.

믿음이 생겨 남

이 믿음이 어떻게 오며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역동성을 가지는지 이해하려면, 우리는 그 여인의 이야기로 돌아가야 할 것입니다.

막 5:27-28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섞여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얻으리라.” 함일러라.

예수님에 관한 소문을 혈루를 가진 그 여인이 들었을 때, 믿음이 왔습니다. 믿음은 항상 들음에서 옵니다.

롬 10:17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모든 장벽들을 맞이해 이 여인이 끈질기게 계속해서 나아간 것으로 보아, 예수님과 그분의 기적 행하시는 권능에 관한 개인적 계시를 이 여인이 가졌음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녀는 모든 의사들을 찾아 다녔습니다. 매번 실망으로 돌아 왔습니다. 지금 그녀의 돈은 없이 되었고, 그녀는 갈수록 악화되어 갔습니다.

그러나 그 때 믿음이 그녀의 영 속에 들어 왔습니다. 예수님께 가기 위해 집을 떠났습니다. 아마도 그녀의 가족들은 율법에 따라 그녀는 “부정한” 여인이며 종교지도자가 그녀를 본다면 돌에 맞을 수 있다는 것을 알기에 그녀를 가지 못하게 했을 것입니다.

믿음이 그녀의 영에 왔을 때, 그녀는 가만히 있을 수 없었습니다. 그녀의 약화된 건강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급히 붙들기 위해 예수님 주위의 군중을 헤집고 들어갔습니다. 그녀가 예수님께 다다랐을 때 회당 지도자들 중의 한 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걸어 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여전히 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믿음이 우리의 영에 오게 되면, 우리는 이 여인처럼 멈출 수가 없게 됩니다. 우리의 감정과 과거의 실망감, 그리고 우리의 종교적 전통들이 우리를 막을 수 없게 됩니다!

믿음은 말합니다

사도 바울이 기록하기를,

롬 10:6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이같이 말하되...

그 여인은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모든 의사들에게 진료를 받아 보았습니다. 그들은 나를 도와 줄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이렇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예수님께서서 나를 고칠 수 있도록 단지 소원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대신 그녀는 새로이 발견한 믿음을 담대하게 선포하였습니다. 그녀는 말하기를, “내가 그 분에게 손을 대기만 해도, 나는 나을 것이다!”

현재의 믿음

믿음으로, 그녀는 자신이 나을 것임을 알았습니다.

믿음이 올 때, 미래의 언젠가 이루어 지기를 바라던 것들이 미래로부터 지금의 영역으로 이동합니다.

히 11:1 지금 or 현재의(=Now: 개역 성경에는 빠져 있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의 정의를 지금(now)이라는 단어로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믿음이라면, 그것은 항상 현재입니다! 그녀는 그녀의 기적이 예수님을 만지는 순간 일어날 것을 알았습니다. 믿음은 그녀의 기적을 실재가 되게 했습니다. 그녀의 병 고침이 그녀의 몸에 나타남으로 받기 앞서, 그녀는 그녀의 영 속에 이미 계시되었던 것을 실재(reality)로 믿었습니다.

믿음은 행합니다

그녀는 믿음으로 행하였고, 예수님의 옷을 만졌습니다.

- 만지는 것은 접촉점이었습니다.
- 그것은 그녀의 믿음이 병 고침의 나타남을 받아들이도록 풀어 놓았습니다.
- 그것은 병 고치는 효험이 그녀의 몸 속으로 흘러 들어 가도록 했습니다.

믿음은 항상 믿음으로 가득찬 행함을 동반합니다. 야고보는 기록하기를,

약 2:20b ... 아아 허탄한 사람이 행함이 없는(행함이 수반되지 않는) 믿음이 헛것인 줄 알고자 하느냐..

게시된 ‘레마’ 말씀으로 인해 우리의 영 속에 믿음이 돌연히 생겨 날 때, 우리는 바라고, 소망했던 일들이 “지금”이라는 영역 속으로 불쑥 나타납니다.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며, 행동으로 옮겨 놓게 됩니다.

믿음은 두나미스, 즉 하나님의 다이너마이트 같은 병 고치는 권능이 흘러가도록 풀어 놓거나 받아들이게 하는 스위치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스위치를 켤 때에 우리는 우리 속에 있는 다이너마이트 권능을 병 고침이 필요한 사람들의 몸 속으로 흘러 들어가도록 풀어놓을 수 있습니다.

문 제

1. 예수님과 바울 그리고 여러분 자신 속에 있는 두나미스 권능을 논증하는 3 가지 성경구절 들을 쓰십시오.
2. 기적을 동반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두나미스 권능과 믿음이 어떻게 함께 역사하는지 설명하십시오.
3. 어떻게 하면 이 진리가 여러분의 삶 속에서 활성화되겠습니까?

제 5 과

안수를 통한 병 고침

병 고침 사역에는 수 없이 많은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안수는 신약에서 가장 빈번히 사용된 방법입니다. 우리가 성령님께 귀를 기울일 때, 성령님께서서는 우리가 언제, 어떻게 사역해야 할지를 계시할 것입니다.

우리가 병든 자들에게 안수할 때, 그것은 하나님의 권능이 우리로부터 다른 사람들 속으로 흘러 들어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접촉점을 제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력이 흐르도록 하기 위해 껍질이 벗겨진 두 가닥의 전선을 함께 묶는 것과 같습니다. 기름을 붓거나, 손수건을 사용하거나, 혹은 다른 천에다 안수 하는 것은 믿음을 풀어 놓을 수 있는 접촉점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다음 과에서 우리가 병 고침의 사역을 행할 때, 우리가 말해야 하는 믿음의 말씀을 공부하겠습니다. 자주, 우리가 병든 사람에게 안수하기 전에, 유사한 병 고침을 받은 다른 이들의 간증을 얘기하거나 혹은 병 고침에 관련된 성경 구절들을 나눔으로써 그의(그녀의) 믿음을 풀어 놓는 시간을 충분히 가져야 합니다.

안수에 관한 성경적 기초

안수하는 것은 구약 성경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우리가 안수를 통한 실제적이고, 만질 수 있는 전이(轉移)가 있다는 것을 이해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구약 성경의 예들

➤ 죄가 염소에게 옮겨짐

레위기를 보면 죄가 염소에게 옮겨졌습니다.

레 16:21-22 아론은 두 손으로 산 염소의 머리에 안수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불의와 그 범한 모든 죄를 고하고 그 죄를 염소의 머리에 두어 미리 정한 사람에게 맡겨 광야로 보낼지니 염소가 그들의 모든 불의를 지고 무인지경에 이르거든 그는 그 염소를 광야에 놓을지니라.

▶ 지혜가 옮겨 짐

모세의 안수를 통해서, 지혜의 영이 여호수아에게로 옮겨졌습니다.

신 34:9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그에게 지혜의 신이 충만하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여호수아의 말을 순종하였더라.

초보적인 원리들

우리는 히브리서에서 안수가 그리스도 도의 초보적인 원리들 중의 하나임을 발견합니다.

히 6:1-2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터를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데 나아갈지니라.

안수는 항상 한 사람으로부터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주거나 혹은 전이(轉移)하기 위하여 사용되어 왔습니다.

성령을 받음

바울이 에베소에 도착하였을 때, 그는 믿는 자들에게 안수하였고, 그리하여 성령이 그들에게 내렸습니다.

행 19:6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매,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므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바울은 디모데에게 안수함으로, 그에게 나누어 주었던 은사들을 불일 듯 일게 하라고 말하였습니다.

딤후 1:6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네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불일듯 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이러한 예들이 보여주듯, 성경은 안수를 통한 영적 전이(轉移)가 있음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가벼이 여기지 말 것

안수의 사역을 가벼이 여겨서는 아니 됩니다. 우리는 우리가운데 사역하는 사람들을 올바르게 알고, 인식하며, 존경해야 합니다.

살전 5:12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성령의 은사들을 나누어 주거나, 혹은 기름 부음과 봉사를 위한 승인을 위해 자주 사용되어지는 안수는 갑작스러운 충동으로 하지 말며,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으로 행해야 됩니다.

딤후 5:22a 아무에게나 경솔히 안수하지 말고...

예수님께서 안수하심으로 사역하셨음

예수님께서 병을 고치실 때, 예수님께서서는 항상 사람들에게 손을 내밀거나, 만지거나, 안수하셨습니다.

문둥이

문둥병은 대단히 전염성이 있는 것으로 인식되는 병입니다. 그러나 문둥병에 걸린 사람이 병 고침을 구하였을 때, 예수님께서서는 안수하셨습니다. - 예수님께서 그를 만지셨습니다.

막 1:40-41 한 문둥병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리어 간구하여 가로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케 하실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민망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저에게 대시며 가라사대,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대.

야이로의 딸

예수님께서 야이로의 딸의 죽음에 불리어 가셨을 때, 예수님께서서는 그 소녀의 손을 잡으셨습니다.(손을 얹으시며) 그리고 그녀의 육체에 생명을 말씀하셨습니다.

막 5:35-42 아직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가로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 외에 아무도 따라움을 허치 아니하시

고 회당장의 집에 함께 가사 흰화함과 사람들의 울며 심히 통곡함을 보시고 들어가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흰화하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저희가 비웃더라

예수께서 저희를 다 내어보내신 후에 아이의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 한 자들을 데리시고 아이 있는 곳에 들어가사 그 아이의 손을 잡고 가라사대, “달리다 굶.” 하시니 번역하면, 곧 “소녀야,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심이라.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 열두 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고 놀라거늘

귀먹고 병어린인 사람

귀먹고, 병어린인 사람의 예를 통해, 우리는 예수님께서 병의 영향을 받은 몸의 그 부분을 만지셨음을 알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의 손가락을 그 사람의 귀속에 넣으시고, 그의 혀에 대셨습니다.

막 7:31~35 예수께서 다시 두로 지경에서 나와 시돈을 지나고, 데가볼리 지경을 통과하여 갈릴리 호수에 이르시매, 사람들이 귀먹고 어눌한 자를 데리고 예수께 나아와,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서 손가락을 그의 양귀에 넣고, 침뱉아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는 뜻이라. 그의 귀가 열리고, 혀의 맺힌 것이 곧 풀려 말이 분명하더라.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안수하셨던 방법을 유의해 보면 흥미롭습니다. 빈번하게도 그것은 병 고침을 필요로 하는 부위였습니다. 항상 사람 머리 위에 안수하는 것이 우리의 전통이 되어 왔을지라도, 우리는 예수님의 본보기로부터 배울 수 있습니다.

모든 믿는 자들은 안수함으로 병 고침을 사역하도록 되어 있음

사도 바울

바울도 또한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손을 얹었습니다.

행 28:8 보블리오의 부친이 열병과 이질에 걸려 누웠거늘 바울이 들어가서 기도하고 그에게 안수하여 낮게 하매

오늘날의 믿는 자들

예수님과 바울은 많은 사람들을 고쳤습니다. 그들이 병든 자들을 고칠 때, 자주 병든 자들을 만났습니다. 우리는 믿는 자들로서 또한 병든 자들에게 안수하도록 가르침을 받습니다.

막 16:17a, 18b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저희가...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마가복음에 의하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마지막 가르침들은 병든 자를 위한 그의 위대한 사랑과 연민을 계시하십니다. 이 말씀들은 오늘날 믿는 자들을 위한 것입니다. 우리도 또한 병든 자들에게 손을 얹어야 합니다.

안수에 대한 실제적인 가르침들

주의: 병을 고칠 때 사용하는 아래와 같은 실제적인 수단들을 함께 나누면서 밝히는 바는, 이러한 방법들이 여러분이 반드시 사용해야 하는 유일한 방법이라든지, 혹은 필수 불가결한 수단들임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들 방법들(methods)은 우리와 세상 도처에 있는 다른 수 천명의 사람들을 위해 있는 성공적으로 입증된 것들입니다.

병든 자에게 안수하는데 분명한 실제적인 지침들이 있습니다. 이들 지침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수 년간의 경험에 근거한 것들입니다.

서는 장소

하나님의 병 고치는 능력이 우리의 몸 전체 속에 있기 때문에 가능한 한 우리는 병든 자를 향하여 정면으로 마주 보고 서야 합니다. 이렇게 하면 수 많은 방해물 가로 막으며, 병든 자가 우리가 하는 말과 행동에 집중하도록 도움을 줄 것입니다. 해 줄 것입니다. 여러분은 성령의 인도하시는 대로 한 손이나 두 손을 사용하십시오.

요구사항을 알아낼 것

본인에게 어떠한 구체적인 병 고침을 하나님께서 해주시리라고 믿고 있는가를 물으십시오. 예를 들어, 휠체어에 앉아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이 휠체어에 앉아 있는 부분을 고쳐주기를 원한다고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그들은 심한 두통이 있어 우리가 그 부분을 위해 기도해 주기를 원할 수 있습니다.

병 고침을 요하는 사람이 그들의 믿음을 긍정적인 고백으로 답변할 수 있도록 그런 방식으로 여러분의 질문을 구사하십시오.

병 고침을 요하는 사람이 여러분에게 부정적인 세세한 이야기들을 길고, 장황하게 늘어 놓지 않게 하십시오. 이렇게 함으로써 그들은 실제로 “나의 상황은 다르다”라고 말하고 있는 셈이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병 고치시는 것을 어렵게 할 것입니다.

부정적인 설명 부분을 봉쇄하십시오. 그들에게 다시 질문 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지금 당장 당신을 위해 무엇을 해 주시기를 믿으십니까?”

민감하십시오. 그러나 긍정적이 되도록 하십시오. 그리고 그들이 여러분에게 부정적인 보고들을 계속하도록 내버려 두지 마십시오. 이는 믿음을 빼앗아가고, 그들의 병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할 것입니다.

그들이 여러분에게 무엇을 말할지라도, 항상 이렇게 말함으로써 반응하십시오. “그것은 하나님께는 쉽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강력하신 분인가?와 하나님께서 그들이 낫기를 얼마나 원하시는지! 거기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을 고정하십시오.

마 19:26 예수께서 저희를 보시며 가라사대,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 **부정적인 고백은 의심을 자아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를 둔 긍정적인 고백은 믿음을 세워 줍니다.

병 고침을 필요로 하는 부분을 만질 것

성령의 병 고치는 능력이 직접 전달되도록 병 고침을 요하는 몸의 그 부분에 손을 대십시오.

마 9:29 이에 예수께서 저희 눈을 만지시며 가라사대,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신대

절대로 타인의 육체의 “사사로운” 부분에 손을 얹지 않도록 하십시오. 만일 이성(異性)인 사람이 “사사로운 부분”에 대해 병 고침을 필요로 할 때에는, 병 고침을 요(要)하는 이와 동성(同性)의 믿는 사람이 당신을 도와서 그들의 손으로 “사사로운 부분”에 안수를 하도록 하십시오.

아니면, 병 고침을 요하는 사람이 그들의 손을 아픈 곳에 얹도록 하고, 여러분의 손을 그들 손 맨 위에 포개어 얹도록 하십시오. 만일 이러한 대안들이 둘

다 실시될 수 없을 경우에는 그들의 머리에 당신의 손을 얹으십시오.

하나님의 능력을 풀어놓아 줄 것

여러분이 어떤 이에게 안수할 때,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에 따라서 그들이 나음을 받고 있음을 마음 속에 떠오르게 하십시오.(= mental picture 을 그리십시오) 여러분이 원하는 병 고치심의 나타남을 기대하면서 그리고 담대하게 말하고, 행동하면서 성령의 병 고치는 능력을 그들의 몸 속으로 흘러 들어가도록 풀어놓아 주십시오.

많은 사람들에게 사역할 것

사역해야 할 사람들의 숫자가 많고 또 병 고치는 기름부음이 대단히 강할 때에는, 대개 병자들의 구체적인 필요에 귀를 기울이는데 시간을 보내기 보다는 가능한 한 재빨리 움직이는 것이 제일 좋은 길입니다.

사람들이 더 많은 관심을 자신들에게 쏠리게 하기 위해 여러분을 중단시키려고 할 지도 모릅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경우가 다른 이들 보다 더 어렵다고 느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더 많은 시간을 소요하시도록 하기 위해 이런 행동을 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것은 불신앙과 교만의 증거입니다. 사람들로 하여금 여러분의 믿음을 소모 시키거나, 그 순간에 있는 강한 기름 부음을 소멸시키지 못하도록 하십시오.

성령의 강력한 기름부음 안에서 움직이십시오. 그리고 가장 짧은 시간 안에 될 수 있는 한 가장 많은 사람들에게 안수하도록 하십시오.

당신의 믿음을 풀어놓아 주십시오

병든 자에게 안수할 때, 그들이 “능력 아래 쓰러지거나” 혹은 “성령 안에서 넘어지도록” 하는 것보다는 그들이 나음을 받도록 당신의 믿음을 풀어놓아 주십시오.

사람들이 “성령 안에서 넘어지고” 또 하나님의 능력 아래 마루 바닥에 쓰러질 수 있지만 여전히 병 고침을 받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아래 쓰러지지 않을지라도 다른 이들은 나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성령 안에서 쓰러지는 경험만을 추구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들이 받을 수 있는 전부입니다.

사람이 고침을 받도록 여러분의 믿음을 항상 풀어놓아 주십시오.

등(=척추), 목 그리고 골반에 대한 병 고침

척추 뼈들이 잘못 정렬 되었거나 (= a misalignment of the vertebrae) 또는 등 부위의 이탈되거나, 파열된 디스크로 인하여 신경이 눌리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척추의 고통을 호소합니다. 눌린 신경은 뇌로부터 근육이나 장기에 좋은 신호를 전달할 수 없어, 척추의 고통뿐 아니라 신체 내에서 많은 문제들을 야기시킵니다.

척추의 고통을 지닌 사람들은 그들의 척추 뼈들이 잘못 정렬되어 있어, 한 쪽 팔이나 또는 한 쪽 다리가 종종 더 짧아 보일 것입니다. 등 뼈들의 조정이 일어날 때, 하나님의 병 고치는 능력의 만질 만한 증거가 환자의 손가락 끝이나 발목 관절 혹은 발 뒤꿈치가 나머지 다른 한쪽과 같아지는 것을 목격함으로써 입증될 수 있습니다.

척추 위쪽 부위의 병 고침

등 위쪽 부위의 병 고침을 시행하려면, 그 환자로 하여금 가로질러 서게 하십시오. 긴장을 풀어 주기 위해 그들의 팔을 옆으로 흔들게 하십시오. 그리고 난 다음 그들의 팔꿈치를 몸에 붙이고, 그들의 팔을 옆으로 넓게 들어 펴게 하십시오. 손바닥을 서로 마주보게 한 다음, 서서히 손을 모아 손가락이 마주치게 하십시오. 종종 한쪽 팔은 다른 한 쪽보다 짧아 보일 것입니다.

환자와 지켜보는 모든 사람들에게 눈을 크게 뜨라고 지시하십시오. 두 손이 부딪히지 않도록 4 분의 1 인치 (6 미리 정도) 가량 떨어지게 하십시오. 당신의 손바닥은 펴서 위로 향하게 하고, 그들의 손 바닥을 당신의 손 바닥 위에 부드럽게 올려 놓도록(안수) 하십시오.

척추의 건(腱)과 근육과 디스크, 그리고 척추골(骨)에 대해 ‘치유함을 받으라’고 ‘완벽하게 정상적인 배열 상태가 되라’고 담대하게 명령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풀어 놓으십시오. 조정이 일어나는 동안 지켜 보십시오. 조정이 멈춘 후에 그들의 등을 확인하기 위해 몸을 이리 저리 움직여 보라고 요청하십시오. 그리고 담대히 물어 보십시오. “통증이 있던 부위에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즉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십시오.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로 인해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할 때, 믿음은 점점 강하게 성장합니다. 막 시작된 병 고침이 갑자기 완벽하게 됩니다. 찬양은 병 고침에 있어 중요한 부분입니다.

등 아래쪽 부위의 병 고침

등 아래쪽 부위의 병 고침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사역할 때는 언제나 의자 뒤 쪽으로 그들의 엉덩이를 밀착시켜 앉도록 하십시오. 병 고침이 필요한 사람을 마주 보며, 일어서서 허리를 굽히십시오. 그리고 그들의 발 끝을 들어 올리십시오. 그들의 발 뒤꿈치나 복사뼈의 정렬을 지켜보십시오.

‘척추골(骨)이나 근육 그리고 척추의 건(腱)들은 고침을 받고, 완벽한 정렬상태로 돌아오라’ 라고 명령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풀어 놓으십시오. 조정이 완벽할 때, 그들에게 일어나 허리를 굽히거나 움직여 보라고 말하십시오. ‘이전에 결코 할 수 없었던 행동을 취해보라’고 요청 하십시오. 다시 담대하게 물어 보십시오. “통증이 있던 부위에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다시 한번 말하건데,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영광을 분명히 돌리도록 하십시오.

목 부위의 병 고침

목 부위의 병 고침이 필요한 사람에 병 고침의 사역을 하려면, 두 손바닥을 환자의 목 가에 얹고 환자 앞에 서십시오. 손가락들은 두개골 바로 하단 부위 검지 손가락에서부터 시작하는 목의 척추골에 올려 놓으십시오.

목 주위의 ‘척추골(骨)이나 근육 그리고 척추의 건(腱)들은 고침을 받고, 완벽한 정렬상태로 돌아오라’ 라고 명령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풀어 놓으십시오. 그들에게 그들의 목을 사방으로 매우 부드럽게 움직여 보라고 지시하십시오. 여러분의 손을 떼고, 환자 본인이 그들의 목을 움직이게 하십시오. 다시 담대하게 이렇게 물어 보십시오. “통증이 있던 부위에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즉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십시오.

골반 부위의 병 고침

잘못 배열된 골반 뼈들 때문에 종종 복숭아뼈 밑의 배열이 잘못되거나 골반 부위의 기관과 척추 측곡(脊椎 側曲 = 척추가 왼쪽 또는 오른쪽으로 굽는 병) 또는 좌골 신경통의 문제가 일어 납니다. 서로 마주 보고 서십시오. 그리고 골반 뼈 맨 상단(맨 하단 갈비 뼈 바로 밑) 양쪽 편에 손을 얹으십시오. 환자가 이성(異性)이라면 머리에 손을 얹거나 그들 손 위에 포개 얹으십시오. 믿음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흘러 가도록 풀어 놓으십시오.

여러분이 ‘골반 뼈들과 천골(薦骨) (= 꼬리 뼈 위, 등뼈의 맨 끝에 자리 잡은 넓고 평평한 뼈를 말함)과 기관들이 정상적인 위치로 움직이라’ 고 명령할 때 환자의 몸이 자주 좌우로 흔들리기 시작할 것입니다. 다시 환자로 하여금 몸을 사방으로 움직여 보고, 확인하게 하십시오. 다시 물어 보십시오. “통증이 있

던 부위에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시오!

기름 부음을 통한 병 고침

기름부음은 기름을 환자의 머리에 붓거나 여러분의 손가락으로 환자의 이마에 기름을 바름으로 시행될 수 있습니다.

장로들에게 기름을 붓도록

이런 병 고침의 방법은 교회의 장로들이 특별하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이 방법은 죄가 사탄으로 하여금 질병으로 공격할 수 있도록 문을 열어 주었을 때 효과적인 병 고침의 방법인 것 같습니다. 죄가 그 원인이라면, 그 죄의 고백은 병 고침을 받도록 하는데 꼭 필요합니다.

약 5:14-16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저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얻으리라.

이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이것은 병든 사람 어느 누구나 자신들의 병 고침을 위해 교회의 장로들을 불러 기름을 발라주도록 요청할 수 있도록 있는 약속입니다.

제자들이 기름을 발랐음

제자들은 기름을 발랐습니다.

막 6:13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인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오늘날의 기름부음

성경 전체를 통해 볼 때, 기름은 항상 성령의 상징입니다. 사람이 성령 세례를 받을 때, 그 사람은 자신 안에 병 고치는 능력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상징은 더 이상 필요치 않게 됩니다; 그러나 기름이 믿음을 풀어 놓는 접촉점으로서 사용될 수는 있습니다.

기름을 바르는 것은 병든 자가 낫도록 믿음으로 이루어 지는 기도가 동반되어야 합니다.

약 5:15a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

기름을 바르는 것은 텅 빈 형태가 되어서는 결코 아니 되겠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흘러가도록 풀어 주면서, 산 믿음으로 이루어 져야 합니다.

천이나 손수건을 통한 병 고침

한 번의 언급

기름을 바른 천의 사용은 신약에서 단지 한번 언급됩니다.

행 19:11~12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회한한 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귀도 나가더라.**

성령의 병 고치는 능력은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로 옮겨졌습니다. 병은 고침을 받았고, 악귀는 떠났습니다.

오늘날에도 효력이 있는가?

▶ 오늘날에도 기름을 바른 천이 효력이 있는가?

하나님께서서는 믿음의 접촉점을 사람에게 가져 다 주기 위해서 다양한 많은 방법들을 사용할 것입니다.하나님을 제한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병 고치의 능력이 매우 실제적이고, 손으로 만질만한 것이어서 천 조각을 사용하더라도 옮겨질 수 있습니다.

이 병 고치는 능력은 치료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완벽하게 믿는 사람이 적어도 한 사람이 있어 이 병 고침에 관련할 때 그 사람에게 의해 풀려 나옵니다. 한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천 조각을 가져오고, 그 천 조각의 기름부음을 요청할 때, 두 사람 내지 그 이상의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 병 고침 받을 것이라는 동의를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난 후 그 믿음을 그대로 간직한 채, 병든 자에게 가져 다, 그에게 올려 놓습니다.

그 때 그 기름부음을 받은 천은 접촉점이 되고, 병 고치는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도록 다시 믿음을 풀어 놓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믿음의 행위입니다.

그것들을 어떻게 사용합니까?

▶ 오늘날, 기름 부은 천을 어떻게 사용해야 합니까?

성령의 병 고치는 능력을 믿는, 모든 성령 세례(침례) 받은 신자들은 천에다 안수하여, 믿음으로 천에다 하나님의 병 고치는 능력을 풀어 놓을 수 있습니다.

(합성섬유나 종이 혹은 다른 물건 말고) 자연 직물로 만든 천을 사용하도록 제안 드립니다.

이 방법은 또한 악귀나 병약함의 영들과 관련될 때 사용되어 질 수 있습니다.

병든 자가 너무 아파서 성령 충만한 믿는 자에게 오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름 부은 천의 사용은 직접적으로 함께 있을 수 없을 때, 사역하는 한 방법입니다.

기름 부음을 통한 병 고침과 기름 부은 천은 성경적이며 오늘날에도 효력이 있습니다.

문 제

1. 병든 자의 병 치유를 사역할 때 왜 “만지는 것”이 중요합니까?
2. 때때로, 환자의 병 고침이 필요한 몸의 부위에 안수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입니까?
3. 어떤 경우에, 병 고치는 사역에서 성경적 방법인 기름을 붓는 것을 사용할 수 있습니까?
4. 어떤 경우에, 병든 자의 병을 고치기 위해 천 조각을 사용하도록 조언할 수 있습니까?

제 6 과

말씀을 말함

믿음은 우리가 말하는 말에 의해 제한 받기도 하며, 풀려 나오기도 합니다. 지난 4 과에서 우리는 믿음이 성령의 병 고치는 두나미스 권능이 흘러가도록 하는 스위치임을 배웠습니다. 우리는 또한 믿음은 항상 믿음이 충만한 말들을 말한다고 배웠습니다. 우리는 “나는 나올 것이다.” 라고 말하며, 자신의 믿음을 말하는 유출병에 걸린 여인의 예를 보았습니다.

우리 믿음의 긍정적인 기대를 선포하는 것 외에 우리가 말해야 하는 ‘믿음이 충만한 말들’의 네 가지 범주(categories)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병 고침의 능력은 다음과 같은 것들에 의해 풀려 나옵니다.

- 예수님의 이름을 말함으로써
- 병 약함의 영들(the spirits of infirmity)을 쫓아 냄으로써
- 창조적인 기적들을 말함으로써
-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말함으로써

예수님의 이름을 말함으로써

예수님의 이름을 말할 때, 어떤 특별한, 의미 심장한 뜻이 있습니까? 그 이름을 말할 때, 실제적인 능력이 있습니까?

“예수”라는 이름의 의미는 사실상 기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또는 “여호와와 구원”이라는 진술입니다. 예수의 이름을 말할 때 실제로 능력이 있습니다.

이름 안에 있는 권세

예수 이름에는 어떤 권세가 있습니까?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

마 28:18 예수께서 나아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예수의 이름은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납니다.

빌 2:5-11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매,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모든 병과 질환은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암, 관절염 그리고 뇌성 소아마비는 이름들입니다. 예수의 이름은 이들 질병의 이름 위에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라고 말할 때 고개를 숙여 절을 해야만 합니다.

이름으로 말미암은 병 고침

초대 교회 성도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병 고침을 말했습니다. 어머니 모태로부터 앓은 맹이인 남자를 고친 베드로와 요한의 예를 다시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행 3:6 베드로가 가로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네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 그의 이름을 믿음

성령의 기름부음 아래 있던 베드로는 예수의 이름을 믿는 믿음을 통해 그 사람이 병 고침을 받았다고 우리에게 말해 주고 있습니다.

행 3:16 그 이름을 믿으므로 그 이름이 너희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 이름을 사용한 것에 대해 위협을 받음

이 병 고침의 결과로 베드로와 요한은 체포되어, 밤새도록 수감되었습니다. 그리고 유대교 지도자들에게서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말라’고 위협을 받았습

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 이름의 능력을 제대로 인식했습니다.

베드로는 다음과 같이 담대하게 말함으로써 그 앓은뱅이를 고친 것에 의문을 품던 그들의 질문에 답변하였습니다.

행 4:10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 그의 이름으로 인한 기사와 표적

베드로와 요한이 믿는 자들에게 돌아와서 일어났던 일들을 보고하였을 때, 그들은 다 함께 목소리를 높여 기도하였습니다. 더 많은 기사와 표적을 요구하며 이 기도를 마쳤습니다.

행 4:29~31 주여 이제도 저희의 위협함을 하감하옵시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옵시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옵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빌기를 다하며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 그의 이름으로 모든 것을 행함

골로새서에서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모든 것을 하라고 가르침을 받습니다.

골 3:17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 그의 이름을 믿으라

막 16:17~18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 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원래(原來) 헬라어에는 구두점(역자 주: 영어에서와 같은 피리어드, 콜론, 세미콜론과 같은 구두점)이 없습니다. 우리는 다음과 같이 구절들을 정확히 읽을 수 있습니다.

이런 표적들이 내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따를 것이다:

- 그들은 귀신들을 쫓아 낼 것이다.
- 그들은 새 방언들을 말할 것이다.
- 그들은 뱀들(마귀)을 집어 올릴 것이다.
- 그들은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그것이 그들을 결단코 해치지 못할 것이다.
- 그들은 병든 사람들에게 손을 얹은 즉 그들은 나으리라.

모든 이름 위의 이름, 예수의 이름에는 권세가 있습니다. 초대 교회 성도들은 믿음을 통하여 예수 이름으로 병 고침을 말하였습니다. 죽임의 위협에도 베드로는 그 병 고침은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라고 단호히 진술하였습니다.

병약함의 영을 쫓아냄으로

예수님의 사역

예수님의 병 고치는 사역 중 대부분, 귀신들(demon spirits)을 쫓는 사역이 동반되었습니다. 오늘날에도 믿는 자들이 흠치고, 죽이고, 도적질하기 위해 원수에게서 배속 받은 그런 영들 위에 권세를 사용함으로써 많은 사람들이 나약함과 질병으로부터 놓임을 받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에서, 우리는 병약함의 영에 의해 사단에게 매인 바 된 한 여인에 관한 글을 읽게 됩니다.

눅 13:11~13, 16 십팔 년 동안을 귀신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보시고 불러 이르시되, “여자여, 네가 네 병에서 놓였다.” 하시고

안수하시매 여자가 곧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지라.

예수님께서서는 이 질병의 영을 사단의 속박(=매인 바 된 것)으로 분명히 규정하십니다.

“그러면 십팔 년 동안 사단에게 매인 바 된 - 그렇다고 생각하심 -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치 아니하냐?”

“병약함(infirmity)”이라는 말은 질병과 나약함을 의미합니다. 간단하게 말해, 병약함의 영은 질병과 나약함의 영입니다. 그것은 모든 종류의 질병이 될 수 있습니다.

불치병

하나님에게는 불치병이 없습니다. 의사들이 불치병이라고 평하는 거의 모든 질병들은 귀신들(demon spirits)에 의한 것입니다. 이런 질병들에 대해 사역을 할 때, 우리는 그 병약함의 영들에게 말하거나 혹은 그 질병의 특정한 이름을 부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는 암과 백혈병 또는 관절염의 영들에게 말을 합니다.

대개 병약함의 영들에 의해 유발되는 질병들의 항목들에 포함된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에이즈(AIDS)	전염병
알코올(술), 담배, 약물 중독	정신병
알레르기	문둥병
관절염	백혈병
천식	전신성 홍반성 낭창 (Systemic lupus erythematosus)
소경	다발성 경화증 (Multiple sclerosis)
암	근 위축증 (Muscular dystrophy)
뇌성마비	파킨슨 병
귀머거리	통증
우울증	마비
당뇨병	경화증 (Sclerosis)
간질병	종양들

성경적인 예들

➤ 말을 못함

마 9:32 ~33a 저희가 나갈 때에 귀신 들려 병어리 된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귀신이 쫓겨나고 병어리가 말하거늘

➤ 귀먹고 말을 못함

막 9:25 예수께서 무리의 달려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가라사대, “병어리 되고 귀먹은 귀신아,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 발작(=경기)

마 17:15, 18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제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이에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 때부터 나으니라.

➤ 장님

마 12:22 그 때에 귀신 들려 눈 멀고 병어리 된 자를 데리고 왔거늘 예수께서 고쳐 주시매 그 병어리가 말하며 보게 되니라.

➤ 관절염

눅 13:11~12 십팔 년 동안을 귀신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보시고 불러 이르시되, “여자여, 네가 네 병에서 놓였다.” 하시고

묶고 풀어줌

병약함의 영들(=병마)을 다루는데 있어서, 우리는 효과적인 사역을 위한 권세와 지시사항을 다 받았습니다.

마 16:19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 묶음(Binding)

묶는다는 것은 감금하다, 묶어 놓다, 혹은 행동하는 기능에 제한을 주다. 예를 들면:

- “이 사람 육체 위에 있는 사탄아 내가 너를 묶노라...”
- “암의 영아 내가 너를 묶노라...”

➤ 풀어줌(Loosing)

풀어준다는 그 사람을 병의 결박(=매인 바 됨)에서 풀어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눅 13:12 예수께서 보시고 불러 이르시되, “여자여, 네가 네 병에서 놓였다(= Woman, you are loosed from your infirmity).

귀신들을 쫓아냄

믿는 자들인 우리에게 부여된 위임 명령의 일부분은 귀신들을 쫓아내는 일입니다.

막 16:17a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마 9:33 귀신이 쫓겨나고 병어리가 말하거늘 무리가 기이히 여겨 가로되, “이스라엘 가운데서 이런 일을 본 때가 없다!” 하되

➤ 암 - 그 한 예(例)

어떠한 사람이 암이 걸렸을 때, 그것은 암 귀신에 의해 그 사람 몸에 씨를 심어 놓은 것입니다. 암을 고치는 몇 가지 실제적인 제안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우선 예수 이름으로 사탄을 묶으십시오.
- 예수 이름으로 암의 영을 묶고, 나가라고 명령하십시오.
- 그 암이나 종양의 씨를 저주하십시오. 죽도록 명령하십시오.

우리는 그 암의 뿌리에 하나님 말씀의 도끼를 갖다 대어야 합니다.

마 3:10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어 불에 던지우리라.

암은 분명히 좋은 열매는 아닙니다. 우리는 담대히 그 좋지 않은 암의 열매를 죽으라고 그리고 뿌리로부터 멸절될 것을 명령할 수 있습니다.

병에 걸린 몸의 부위에 안수하십시오. 믿음으로 병 고치는 능력을 풀어 놓으십시오. 창조적인 기적을 말하십시오. 그리고 파괴되고, 죽은 조직과 기관이 다시 살아나고 회복될 것을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십시오.

산과 같은 질병에게 말하십시오

자주, 우리는 사고나 수술, 선천성 결함 또는 악화되는 질병 때문에 우리 신체의 일 부분을 잃어 버립니다. 우리는 “산과 같은 질병에게 말함으로써” 그리고 신체의 일부분이 새로이 생겨나도록 하나님 말씀의 창조적인 능력을 입술로 명령함으로써 기적을 행할 수 있습니다.

막 11:23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지우리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를 줄 믿고 마음에 의심치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전 날, 예수님께서서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습니다. 제자들은 그 후 그 옆을 지나갈 때, 무화과 나무가 죽은 것을 보고 놀랐습니다. 23 절은 제자들에게 하신 예수님의 설명의 일부분입니다. 사실상, 예수님께서서는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무화과 나무는 작다 그리고 너희는 산이 없어지라고 명령할 수 있다!”

우리 삶 속에서 산들은 영적이고, 감정적이고 또는 육체적일 수 있습니다. 산들은 힘이 세고, 움직이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산보다 강하고, 확고 부동합니다.

명령하십시오!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말하며”라고 말씀하셨지, “누구든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 주시기를 간구하며”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말한다는 말은 명령한다는 의미입니다.

성령께서 오신 후, 제자들이 병든 자들을 위해 기도했다는 언급하는 곳은 성경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권능 - 현재 우리 안에 있는, 동일한 병 고치는 능력 - 을 통해 병든 자들에게 병 고치는 사역을 했습니다.

병든 자들을 고치십시오!

우리 중 많은 사람들이 마치 병든 자들을 고치는 것을 매우 꺼리시는 하나님께 병든 자를 고쳐달라고 애걸하는 것처럼 병든 자들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별 성과를 거두지 못해 왔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도록 말씀하셨던 바를 우리가 하지 않고, 대신 하나님께서 해주시도록 구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마 10:8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문둥이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막 16:18b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주권을 가지십시오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주권과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창 1:26a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다스리게 하자.”

예수께서 우리에게 그러한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권세와 능력으로 말하게 되어 있습니다.

눅 4:32 저희가 그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말씀이 권세가 있음이러라.

눅 10:19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단코 없으리라.”

예수님께서 전한 말씀과 그분의 권세는 우리 안에 있으며, 그것은 여전히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십시오

우리는 병의 나무에게 말할 수 있습니다.

눅 17:6 주께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겨자씨 한 알 만한 믿음이 있었다면 이 뿔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우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시몬의 장모의 고열(高熱)을 꾸짖었습니다. 예수님은 그것에 대해 권세를 사용하였습니다.

눅 4:39 예수께서 가까이 서서 열병을 꾸짖으신대, 병이 떠나고 여자가 곧 일어나 저희에게 수종드니라.

예를 들면, 우리는 몸이 정상적이 되라고 명령합니다.

- “혈압은 - 정상으로 될 찌어다!”
-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신장들은 정상적으로 기능을 할 찌어다.”

우리는 창조적인 기적들을 말합니다.

- “나는 새로운 심장이 이 몸 속에 생기도록 말한다.”
- “나는 이 손가락들이 자라나도록 명령한다!”

막 3:1, 3, 5b 예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편 손 마른 사람이 거기 있는지라.

예수께서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한 가운데 일어서라” 하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네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

있더라.

담대히 그리고 강력하게 말하십시오

우리가 신약 성경에서 병 고치는 사건들을 읽을 때, 우리는 종종 다음과 같이 선포하는 말들을 읽게 됩니다:

요 11:43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행 3:6b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바울은 루스드라에서 앓은뱅이에게 사역을 하였습니다.

행 14:9~10 바울의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 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 가로되, “네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뛰어 걷는지라.

우리는 병 고치는 말을 담대히 말하는 예(例)들과 지시들을 봅니다. 이것이 비록 우리의 전통과 다를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갑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말함

우리가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병 고침을 가져 다 주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합니다. 우리의 말을 생명 혹은 죽음, 질병 또는 건강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말을 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병 고침을 가져 옵니다.

생명 아니면 죽음

솔로몬 왕은 생명과 죽음이 혀의 능력에 있다고 분명히 했습니다.

잠 18:21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그 열매를 먹으리라.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죽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말로써 다른 사람들을 죽이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말함으로써 사는 법을 배우고 있습니다.

구원을 고백함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구원을 시인합니다.

롬 10:8-10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네게 가까워, 네 입에 있으며 네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온전한 구원은 병 고침과 악령으로부터 자유롭게 되는 것을 포함합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해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것과 꼭 같이 우리는 병 고침을 위해 우리의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라

백부장이 예수님께 와서 그의 종을 고쳐달라고 요청하였을 때, 백부장은 권세와 말의 능력을 알았습니다. 백부장이 예수님께 말하기를, “단지 말씀만 하옵소서, 그러면 나의 하인이 낫겠삽나이다.”

마 8:5-10, 13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아와 간구하여 가로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와하나이다.”

가라사대, “내가 가서 고쳐 주리라.”

백부장이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치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삽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기이히 여겨, 좇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네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시로 하인이 나오니라.

예수님께서서는 예수님께서 단지 말씀만 하시면, 자신의 하인이 나올 것으로 인식한 이 백부장의 믿음을 높이 칭찬을 했습니다. 백부장은 권세를 인식했을 뿐 아니라, 말을 하는 것에 대한 중요성을 알았습니다. 만일 우리가 단지 하나님의 말씀만을 말하게 된다면, 우리의 감정이나 우리의 의심 또는 우리의 불신

을 말하지 않을 것입니다.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도록 가르침을 받습니다.

잠 4:20~22 내 아들이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나의 이르는 것에 네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네 눈에서 떠나게 말며; 네 마음 속에 지키라; 그것은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 온 육체의 건강이 됨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보내셨음

시편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내사, 그들을 고치신 것을 발견합니다.

시 107:20 저가 그 말씀을 보내어 저희를 고치사, 위경(危境)에서 건지시는도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말함으로, 말씀을 내 보내야만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과 권위로 하나님의 말씀을 말함으로, 앞으로 내 보낼 수 있습니다.

헛되이 돌아 오지 않음

하나님께서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결과 없이, 그냥 돌아오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 하셨습니다. 헛되이 돌아오지 않을 것입니다.

사 55:10~11 비와 눈이 하늘에서 내려서는 다시 그리로 가지 않고, 토지를 적시어서, 싹이 나게 하며, 열매가 맺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 양식을 줌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뜻을 이루며, 나의 명하여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

우리는 어떤 목적을 위해 주어진 하나님 말씀이 실패로 돌아오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압니다. 열방(列邦) 만국에게 병 고침을 가져 다 주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의 일 부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손과 입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구원의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며,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병 고침을 가져 다 줍시다.

문 제

1. 병든 자에게 병 고침을 사역하기 위하여 당신이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할 때, 당신은 무슨 일이 일어나기를 기대하십니까? 그 이유를 설명하십시오.
2. 만일에 당신이 의사가 암이나 혹은 다른 어떤 “불치의 병”으로 죽어가고 있다고 말했던 어떤 이를 위해서 기도하도록 부름을 받았을 때, 당신은 그들에게 어떻게 병 고침의 사역을 하겠습니까?
3. 병 고침의 사역을 할 때, 강력하게 큰 소리로 말하는 다섯 가지 성경적인 사례(事例)를 목록화 하십시오.

제 7 과

행동과 기도를 통한 병 고침

우리는 병든 자들의 병 고침에 관련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것의 중요함을 지난 과들에서 배웠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많이 안다고 할 지라도, 우리 쪽에서 행동으로 옮기지 않는다면, 병 고침은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말해야만 합니다. 우리는 행동에 옮겨야 합니다. 우리는 병든 자들에게 손을 내밀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분량 - 우리의 분량

**기적들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우리의 분량은 우리가 해야 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 분의 분량을 하시기를
기대해야 합니다.**

노아는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 하나님께서는 땅에 홍수가 나게 하셨습니다.

모세는 지팡이를 내밀었습니다 - 하나님께서는 바다를 가르셨습니다.

여호수아는 여리고 성 주위를 행진했습니다 - 하나님께서는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셨습니다.

엘리사는 강에 막대기를 던졌습니다 - 하나님께서는 도끼가 떠오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분량

병든 자에게 고침을 사역하는데 있어서 우리가 취해야 할 행동이 있고, 하나님께서 취하실 행동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2 중 과정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믿음을 토대로 행동을 취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그 분의 분량의 일을 하실 것이며, 병 고침의 나타남을 가져다 주실 것입니다.

▶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음

예수님께서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느니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쉽습니다.

눅 18:27 가라사대, “무릇 사람의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막 10:27 예수께서 저희를 보시며 가라사대,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

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예수님께서 “믿는 자에게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고 말씀하실 때, 그것에 동의하는 것은 무척 어렵습니다.

막 9:23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육적인 상태에는 불가능하게 보일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만일 하나님께서 그것을 말씀하셨다면, 사람의 힘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마 17:20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만일 믿음이 한 겨자씨만큼만 있으면,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기라’ 하여도 옮길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우리의 분량

➤ 순종함으로

예수님께서서는 우리에게 병든 자에게 손을 얹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우리는 두려움 때문에 이 명령에 불순종하지 않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삼상 15:22 사무엘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숫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 병 고침의 기적을 경험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의 명령과 가르침에 순종해야만 합니다. 우리는 성령께서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재빨리 순종해야 합니다. 비록 그것이 엉뚱하게 보일지라도 말입니다.

➤ “할 수 있다”는 태도를 개발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발전시키면: “나는 할 수 없어!”라고 하는 말을 중단하고, “나는 할 수 있다!”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동의하기 시작하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라고 명령하시는 어떤 것도 할 수 있습니다.

빌 4:13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 다가오는 두려움

실패에 대한 두려움 혹은 부끄러움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닙니다. 그러한 것들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위해 계획하신 모든 것을 하지 못하게 할 것입니다. 비 정상적인 두려움은 사탄이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기 위해서 보낸 두려움의 영입니다.

딤후 1:7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이니

하나님 말씀을 행동으로 옮겨 놓기 위해서 우리는 실패의 두려움을 이겨내야 합니다. 그리고 기적이 일어 나지 않을 경우 따르는 우리의 평판에 대해 두려워 하지 않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우리를 위해 그 분의 명성을 포기하셨다면, 왜 우리는 우리의 명성(혹은 평판)에 대해 염려해야 합니까?

빌 2:7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여러분 자신에게 결코 이렇게 묻지 마십시오. “그러나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다면 어쩌나?” 그 대신에 이렇게 물으십시오. “내가 순종하고, 그리고 그들이 병 고침을 받아들인다면?” 어

기분이 아닌 믿음으로 행동함

두려움과 부끄러움 그리고 무능과 열등감의 감정들은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병 고침의 나타남을 받지 못하게 하거나, 믿음으로 움직이며 다른 사람들에게 병 고침 사역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 하여 왔습니다. 우리는 믿음과 두려움을 동시에 함께 가지고 행할 수 없습니다.

믿는 자로서, 우리는 성령으로 살아야 합니다. 우리의 생각 (minds)은 하나님 말씀의 계시로 갱신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행동은 하나님께서 그 분의 말씀을 통해 계시하시고, 우리의 영에 말씀하신 바에 순종해야 합니다.

우리의 혼(souls)이 회복될 때, 우리의 느낌과 감정은 과거의 부정적인 경험이 아니라, 우리의 영에 순종함으로 반응할 것입니다. 더 이상 사탄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하도록 할 수 없을 것입니다.

말씀을 믿음

우리가 병 고침의 기적을 위해 하나님을 믿으려면,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무엇을 행하시겠다고 말씀하신 바를 정확히 알아야만

합니다.

➡ 믿음은:

- 결코 느낌일 수 없고, 느낌은 결코 믿음일 수 없습니다.
- 느낌과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 느낌을 무시합니다.
- 하나님 말씀을 통해 옵니다.
- 하나님께서 그 분의 말씀으로 계시한 모든 것을 알고, 믿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느낌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너무 피곤해.”

“나는 어떻게 해야 할 지 모르겠어... 아마 실패할 거야”

“나는 이전에 그것을 많이 노력해 봤어 그리고...”

“해 보고 싶어, 그러나 너도 알다시피 나는 그렇게 담대하지 않아...”

믿음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행동에 옮겨 놓을 거야”

“나는 믿고, 받아들일 거야”

“나는 의심치 않아 그리고 의심치 않고 행할 거야!”

어떤 이는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 병 고침을 받을 수 있지만 아무것도 느끼지 못할 수 있습니다. 다른 이들은 하나님의 병 고침의 능력의 큰 밀려움; 즉 뜨거움, 시원함, 혹은 전류와 같은 충격을 느낄 수 있습니다.

병 고침의 나타남을 위해서는 느낌들을 얻으려고 바라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나 약속된 결과들을 바라고, 믿고, 또 기대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함

예수님께서 담대하게 사역하심

예수님께서 종종 어떤 담대한 행동을 요구하심으로 병을 고치셨습니다.

➤ “손을 내밀라”

예수님께서 손 마른 병자에게 그가 이전에 할 수 없었던 일을 하도록 명령하심으로 그를 고치셨습니다.

마 12:10a, 13 한 편 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이에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손을 내밀라.” 하시니, 저가 내밀매 다른 손과 같이 회복되어 성하더라.

이 같은 내용의 이야기는 마가복음 3:1~5 과 누가복음 6:6~10 에서도 일러 줍니다. 이 구절들은 행동에 대해 말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그 사람에게 어떤 일을 행하도록 명하셨습니다. 그 사람은 예수께서 말씀하셨던 바대로 정확히 그의 손을 내밀었습니다. 예수께서 하도록 말씀하셨던 바대로 행동함으로써, 그는 나음을 입었습니다.

➤ “가서 씻으라”

예수님께서서는 장남에게 못에 가서 씻도록 말씀하심으로 그를 고치셨습니다.

요 9:6~7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그 사람은 예수께서 진흙을 이겼을 때, 그의 시력을 얻게 되었습니까? 아니면 예수께서 그의 눈에 바르셨을 때, 아니면 못에 가서 씻었을 때 시력을 얻게 되었습니까?

그 사람은 믿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그의 믿음으로 행동으로 옮겨 놓았을 때 그의 시력을 얻게 되었습니다.

➤ “상을 가지고”

예수님은 중풍병자에게 “일어나, 네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고 명하셨습니다.

막 2:11~12 “내가 네게 이르노니, 일어나 네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저희가 다 놀라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며 가로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평상 상태에서, 그 사람이 일어나 그의 침상을 들고 어디를 간다는 것은 불가능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즉시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행동으로 옮겼고, 나음을 받았습니다.

제자들은 본을 따랐음

베드로와 요한은 예수께서 주셨던 병 고침의 본을 따랐습니다. 그들은 앓은뱅이에게 일어나 걸어가라고 명령하였습니다.

행 3:6-7 베드로가 가로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네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 서서 걸으며

믿음에 행함을 더함

야고보는 우리에게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고 말해 줍니다.

약 2:14, 17, 18, 20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혹이 가로되,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아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 알고자 하느냐?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해야 되겠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행함으로 옮겨짐에 따라, 하나님의 병을 고치는 능력이 역사하도록 우리는 풀어놓아 주게 됩니다. 하나님의 병 고치는 능력이 행함으로 흘러 가도록 허용되면, 연약함은 떠나야만 합니다.

믿음 - 행위는 병 고침의 사역을 행하는데 있어 중요합니다. 때때로 믿음 - 행위는 병 고침을 사역하는 한 사람으로 인하여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다른 경우에는 지시에 순종하며 병 고침을 기대하는 그 사람에 의해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행함에 대한 실질적인 제안들

당신이 어떤 이에게 병 고침을 사역하는 순간에, 그들이 이전에 할 수 없었던 어떤 일을 하도록 그들에게 말하십시오.

➤ “팔을 움직여 보라” - “꾸부려 보라” - “검사해 보라”

➤ 담대하게 물어보라, “통증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 **당신은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임을 믿으십니다! 그와 같이, 행동으로 옮겨 놓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십시오. 여러분의 믿음의 수준대로 행하십시오.**

- **믿음은 행함으로 옮깁니다.**
- **하나님의 병 고치는 능력이 풀려 나옵니다.**
- **병 고침이 오게 됩니다!**

➤ 경고!

부목(副木)을 벗으라던가 아니면 약을 복용하던 것을 중단하라고 말해서는 결코 안됩니다. 심지어 암시해서도 안됩니다. 우리는 그 사람의 믿음이 어디에 있는지 알지 못합니다. 우리는 그들이 그들의 병 고침의 나타남을 받아들이지 못하도록 하는 방해물들을 그들의 삶 가운데 가지고 있는 것조차 모릅니다.

우리는 긍정적으로 말해서, 그들 속에 믿음이 일어나도록 해야 합니다. 그들이 부목(副木)을 벗어 버리는 믿음을 가지면, 그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주의: 당신은 의사들의 지시사항과는 정반대로 당신의 가르치고, 환자가 취한 행동으로 인해 일어난 즉각적이거나 혹은 미래의 어느 한 시점에 일어난 부정적인 결과에 대해 법적으로 책임을 져야 하는 재판을 받을지도 모릅니다.

기도와 병치유의 이해

잘못된 개념

병든 자들을 고치는 사역에 있어 기도와 기도의 역할에 관해 잘못된 개념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마치 하나님께서 병든 자를 고치시는 것이 마음에 내키시지 않는 것처럼 우리가 기도하고 간구하거나 혹은 심지어 애걸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병든 자를 고쳐야 할 이유들을 하나님께 고(告)합니다. 예를 들면, “그는 기독교 공동체에서 이러한 지도자입니다... 그는 너무나 착한 사람입니다, 주님께서는 그를 고치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병든 자를 고치시는 것에 주저 주저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2,000 년 전에 그분의 몫을 다 하셨습니다. 2,000 년 전에 예수님께서 자신의 몸에 채찍을 맞으심으로써 우리의 고통과 연약함을 담당하셨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 하셨던 바를 우리가 행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으면 나올 것이라고!

우리의 전통적인 견본은 기도를 받게 하기 위해 줄을 서도록 하고, 병든 자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병든 자를 고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병든 자가 자신에게 기름을 바르기 위해 장로들을 청할 수 있으며, 믿음의 기도가 병든 자를 낫게 할 것이라고 한 야고보서 5 장 14 절과 15 절 이외에, 오순절 이후, 믿는 자들이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병 고침의 어떤 예도 성경에서 찾아 볼 수가 없습니다.

기도의 정의

기도는 우리를 위해 무엇인가를 하나님께서 해 주시도록 애걸하는 형태가 되어서는 아니 됩니다.

➡ **기도는 하나님의 말씀과 그의 말씀을 시행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의 한 표현이며 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바를 그가 시행하실 것을 동의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할 때, 우리의 소망은 믿음이 되고 또 우리의 믿음은 우리를 움직여 믿음으로 가득찬 행위로 하나님께 순종하도록 합니다. 우리가 믿음의 표현으로 기도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하셨던 것을 우리의 것으로 받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하신 일들을 하게 됩니다. 기도는 우리의 믿음을 긍정적인 행동으로 풀어놓아 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표현으로서의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병든 자를 고치고자 할 때의 사역 기간을 위해 우리를 준비시켜 주는, 하나님으로부터 음성을 듣는 시간입니다.

합심기도

너희 중 둘이 합심하면

합심기도의 성경적 개념은 우리가 병든 자에게 병 고침을 실천하고 또 이해하는데 중요한 원칙이 됩니다.

마 18:19~20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저희를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합심

당신이 합심하게 될 때, 당신은 다른 사람과 전적으로 조화를 이루고 있는 것

입니다. 두 사람이 연합되어, 병 고침을 위하여 예수의 이름을 믿는 곳에, 바로 그곳에 하나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기도는 응답 받게 마련입니다.

또한 우리가 다른 사람과 합심하여 기도할 때 보다 강력함이 있습니다.

수 23:10 너희 중 한 사람이 천명을 쫓으리니 이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심이라.

신 32:30a 어찌 한 사람이 천(千)을 쫓으며 두 사람이 만(萬)을 도망케 하였을까...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한 사람이 천(千)을 쫓을 수 있지만, 두 사람은 만(萬)을 도망케 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합심기도는 우리 기도의 효력을 10 배로 증가 시킬 수 있습니다.

가능할 경우, 병 고침을 위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병든 자에게 가르쳐 병든 자의 믿음이 우리의 믿음과 합의할 만한 단계까지 세워 놓아야 합니다.

본인이 병이 너무 심하여 병 고침에 대한 성경의 진리를 파악할 수 없거나 혹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수조차 없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두 믿는 자들이 당사자를 위해 강력하게 합심하여 기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합심하면 우리의 믿음은 여러 배로 증가하게 되고, 사역에서의 우리의 효력은 증가됩니다.

믿음의 기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

기도는 사역에서 기본적인 요소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효과적이 되어야 하며 무의미한 중언부언이 되어서는 안됩니다. 믿음의 기도를 함은 종종 능력있는 결과의 열쇠입니다.

▶ 기도는 하나님의 진리와 명령과 약속들에 대한 동의로 기도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기도는 보이지 않는 영역을 들여 다 보고 그것이 시행된 것으로 간주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기도는 성취함을 가져옵니다.

약 5:14-15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저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얻으리라.

막 11:22~24 예수께서 대답하여 저희에게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지우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를 줄 믿고 마음에 의심치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믿음의 원수들

믿음의 강력한 원수들은 우리의 갱신되지 않은 생각들(minds)입니다. 우리는 성령으로 행하는 것과 함께 동시에 우리의 지성으로 행할 수 없습니다.

➤ 용서 안함

당신의 삶 속에 용서하지 않는 것이 있게 되면 믿음의 기도는 효력을 발휘할 수 없습니다. 용서하지 않음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는 장애물입니다. 우리는 용서하지 않음과 믿음으로 행하는 것을 동시에 붙잡을 수는 없습니다.

막 11:25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셨더라.

➤ 불신앙

불신앙은 믿음의 반대입니다. 믿음의 기도는 “당신이 그것을 이미 받은 줄로 믿는 것”입니다. 불신앙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미 이루어 놓으셨던 것을 우리가 받아들이지 못하도록 방해합니다.

➤ 의심

의심 또한 믿음의 반대입니다. 병을 고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의심하게 되면, 병 고침을 위한 믿음의 기도는 주어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정 반대 되는 가르침은 불신과 의심을 가져 옵니다. 용서하지 않음과 불신 그리고 의심은 생각(mind)의 영역들입니다.

만일 당신이 병이 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면, 병 고침을 위해서 믿음의 기도를 하는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겠습니까? 의사들에게 도움을 구하거나 혹은 어떤 다른 종류의 의학적 도움을 구하는 것 또한 잘못

된 것이 아닐까요?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위해 우리가 병약함의 고통 당함을 원하신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병약함과 고통 그리고 슬픔을 담당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즉각적인 결과를 나타냄?

믿음의 기도는 항상 즉각적이고, 가시적인 결과를 가져 옵니까?

우리가 믿음의 기도를 할 때, 즉석에서 결과를 체험하지 못하였다도, 우리는 결과를 받은 줄로 여전히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로 서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모든 병의 증상들을 완전히, 살살이 제거해 주시도록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고 의심치 않도록 해야 합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 고침의 과정에서 필수적인 부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동의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진실된 것처럼 행동하면, 엄청난 산이 들리어 지게 될 것입니다.

남아있는 어떤 부정적인 증상에 초점을 맞추기 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진실임을 당신이 알고 있음에 대해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하십시오. 아무리 보잘 것 없이 보이는 것이라도 증상에 긍정적인 변화에 대해 하나님께 찬양하기 시작하십시오. 여러분의 확신을 떨쳐버리지 마십시오. 완전한 나타남이 올 때까지 계속해서 믿고, 받아들이십시오.

말씀으로 기도함

정의

➡ **말씀으로 기도함은 실제로 있는 성경구절을 붙들고 하나님께**

그 구절을 되들려 기도함을 뜻합니다. 그러나 그 구절을 개인적인 것이 되도록 바꿉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바를 하나님께서 시행하시도록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믿음을 풀어놓아 줍니다. 예를 들어,

아버지, 당신은 이사야 53 장 5 절에 예수께서 찢림은 나의 허물을 인함ियो, 그가 상함은 나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내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나음을 입었습니다 라고 기록하셨습니다. 이제 저는 당신은 기록하셨던 바 그대로 정확하게 의미하시는 줄로 믿고 있습니다. 저는 나음을 입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러 갈 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가십시오.

엡 6:17-18a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성령의 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무기를 갖고서, 사탄을 패배 시킵시다. 우리가 말씀을 가지고 기도할 때, 우리는 하나님과 합의하여 기도하고 있다는 확신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효과적인 기도

믿음과 합의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효과적으로 기도하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의 일을 하도록 하고 병든 자에게 병 고침 사역하는 데 있어 중요한 부분이 됩니다.

막 1:35 새벽 오히려 미명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약 5:16 이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지시를 받기 위해 기도함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하며, 병 고침 사역을 어떻게 시행하여야 할 지에 관해 하나님의 특별한 지시를 받기 위해 하나님께 물어 보는 시간을 먼저 갖는다면, 우리는 우리 자신과

다른 사람들을 위해 기도함에 있어 보다 효과적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예를 바울이 멜리테 섬에서 사역 함에서 발견합니다.

행 28: 8 보블리오의 부친이 열병과 이질에 걸려 누웠거늘 바울이 들어가서 기도하고 그에게 안수하여 낫게 하며

왜 성경이 바울이 기도를 마친 후, 이 사람에게 병 고침 사역을 했다고 분명히 하고 있습니까? 그의 기도는 하나님으로부터 음성을 - 효과적인 사역을 위해 특별한 지시를 받기 위해 - 듣는 것처럼 보입니다. 순종함으로 바울은 병자에게 손을 얹었고 그를 고쳤습니다.

문 제

1. 병든 자를 고침에 있어서 우리의 역할과 하나님의 역할을 설명하십시오.
2. 당신은 어떻게 기도와 하나님의 말씀을 관련 시킬 수 있는지 설명하십시오.
3. 합심기도와 믿음의 기도의 정의를 내리고 또 병든 자에게 병 고침을 사역함에 있어서 어떠한 적절한 기도가 당신을 더 효과적으로 만들 수 있는가를 설명하십시오.

제 8 과

안으로부터의 치유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를 계시합니다. - 우리 몸의 건강과 병 고침은 우리 혼(soul)의 건강과 병 고침에 달려있습니다. 건강 전문의 들의 연구는 용서하지 않음과 분개 그리고 쓴 뿌리 그리고 증오가 관절염, 류마티즘과 암과 같은 질병의 원인이 될 수 있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문을 닫아라!

생각(mind)이나 감정에서의 부정적인 태도는 마귀가 우리의 육체를 공격할 수 있도록 장소나 권리를 제공하며 문을 열어 놓을 수 있습니다.

엡 4:26~27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종종 육체적인 질병은 그 사람의 안, 즉 혼(soul)에 들어 있는 상처들의 증상입니다. 우리에게 거절감을 주었고, 배신했거나 혹은 우리에게 상처를 주었던 사람들을 용서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생각(mind)을 새롭게 함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치료의 능력으로 우리의 혼을 회복시킴으로 우리는 이러한 문들을 닫을 수 있으며, 우리 몸을 공격하는 사탄의 권리를 제거할 수 있습니다.

용서하지 못하는 것과 그 밖의 다른 부정적인 태도는 병든 자로 하여금 자신의 몸에 병 고침의 나타남을 받을 수 없게 만드는 장애물입니다. 육체적인 병 고침을 받은 사람조차도 자신들에게 상처 준 사람들을 용서하는 것을 거절한다면 그들 자신의 병 고침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일단 하나님께 순종하고, 자신들에게 상처 준 사람들을 용서하게 되면 병 고침을 받아 들이고, 간지하는 것이 쉽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는 이것을 안으로부터의(the inside out!) 병 고침이라 부릅니다.

사도 요한이 기록하기를,

요삼 2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잘됨같이 네가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혼(soul)을 이해함

우리의 육체적인 건강과 번영은 그 혼의 건강에 달려 있기 때문에 혼에 관해서 좀 더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 혼은 정신적이고, 감정적인 영역에서 인식한 바에 대해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는 것과 우리의 육체적인 감각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우리의 한 부분입니다. 그것은 다음과 같은 것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 인간의 지능 - 추리하고 사고하는 부분
 - ▶ 우리의 감정 - 우리의 감각에 반응하는 우리의 느낌들
 - ▶ 우리의 의지 -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려는 결단력

영과 혼 그리고 몸

우리의 혼을 이해하려면, 우리는 혼이 우리의 영과 몸과 다르다는 것을 구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삼위 일체(a triune being)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우리의 전인(全人, total being)을 구성하기 위해서는 이들 각 부분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거듭나기 전에는, 우리는 영적으로 죽었습니다. 죄로 인해, 우리의 영은 작용할 수 없었습니다. 구원 받는 순간, 우리는 영적으로 살아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몸은 우리의 혼과 우리의 영을 위한 집이라고 일컬어 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극단적으로 단순한 말로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 ▶ 우리는 영입니다
- ▶ 우리는 혼입니다.
- ▶ 우리는 몸 안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의 거듭난 영은 우리의 영 속에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영은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는 우리의 일부분입니다. 새로운 피조물로서, 우리의 영은 거룩하고, 의롭고, 죄가 없으며 완전합니다. 이는 영원히 지속되는 것입니다.

우리 혼의 구원

과거의 상처 받은 경험들 때문에, 우리의 혼은 우리 몸처럼 치유가 필요합니다. 우리의 생각(mind)은 하나님의 말씀을 새롭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감정은 우리에게 상처 준 사람들을 용서하고, 하나님의 병 고침의 능력을 받음으로 치유되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의지는 예수의 주(主) 되심(lordship)에 복종해야 합니다.

베드로는 이 믿음의 제자과정을 우리 혼의 구원이라고 불렀습니다.

벧전 1:9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 역자 주 - 개역 성경에서는 ‘영혼’이라고 번역되어 있으나 원(原) 헬라어 성경에는 ‘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구별된, 성화(聖化)의 경험적인 과정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혼과 몸을 우리의 영이 있는 바로 똑같은 장소의 총체(wholeness) 속으로 더욱 더, 더욱 더 끌고 가는 것입니다.

살전 5:23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흠 없게 보전되기를 원하노라.

혼의 고난들

괴로움의 원천

우리의 혼에 대적하여 싸우는 고난의 원천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부모, 자매, 형제 혹은 우리의 친척들이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성장함에 따라 우리 모두는 어느 정도 정서적으로나 육체적으로 혹은 심지어 성적으로 학대를 당하였습니다. 많은 다른 상처들은 배척이나 거절감을 통한 것이었습니다. 적지 않은 사람들이 가족이나 친척에 의해 배신감을 경험하거나 사랑받지 못함을 느꼈습니다.

다윗이 기록하기를,

시 34:19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약 5:13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찬송할지니라.

➤ 거친 부모들의 태도

거친 부모의 태도들은 혼의 상처를 주는 원인이 되고 아이에게 지금과 또 장래에 문제들을 야기시킬 수 있습니다.

엡 6:4 또 아버지야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 부도덕한 행위

부도덕한 행위는 혼에 상처를 주며, 당사자들뿐만 아니라 그들 주위의 사람들에게 고난을 가져옵니다.

잠 6:32~34 부녀와 간음하는 자는 무지한 자라 이것을 행하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망하게 하며 상함과 능욕을 받고 부끄러움을 씻을 수 없게 되나니 그 남편이 투기함으로 분노하여 원수를 갚는 날에 용서하지 아니하고

➤ 최악된 욕구들

욕욕과 부와 혹은 지위를 사랑하는 마음과 같은 최악된 욕구들은 혼의 원수들입니다.

벧전 2:11 사랑하는 자들아 나그네와 행인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 육체의 일

최악된 행위들은 혼을 병들게 합니다.

갈 5:19~21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술수와 원수를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주님이 나의 혼을 회복시키십니다

이제껏, 우리는 육체적인 영역에서의 병 고침에 대해서 가르쳐 왔습니다. 그러나 우리 혼을 위한 치유가 있습니까?

다윗 왕의 기도

다윗은 자신의 혼을 고침 받기 위해 기도하였습니다.

시 41:4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였사오니, 내 영혼(역자 주: soul)을 고치소서” 하였나이다.

주목하여 보십시오, 다윗의 혼은 자신의 죄로 인해 상처를 입었습니다.

시 6:1~4a 여호와여, 주의 분으로 나를 견책하지 마옵시며, 주의 진노로 나를 징계하지 마옵소서. 여호와여, 내가 수척하였사오니 긍휼히 여기소서; 여호와여, 나의 뼈가 떨리오니 나를 고치소서. 나의 영혼(soul)도 심히 떨리나이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이까? 여호와여, 돌아와 나의 영혼을 건지시며

시편 23 편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떤 상황가운데서도 평강을 갖기를 원하심을 묘사한 아름다운 장면입니다.

시 23:1~3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של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데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역자 주: 회복시키시고)

만족한 바 된 혼

혼의 성화(聖化)를 위한 특별한 약속이 있습니다.

사 58: 10~11 주린 자에게 네 심정을 동하며 괴로와하는 자의 마음을 만족케 하면 네 빛이 흑암중에서 발하여 네 어두움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나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마른 곳에서도 네 영혼을 만족케 하며 네 뼈를 견고케 하리니 너는 물댄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이사야는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돕고자 우리 자신을 아낌없이 준다면, 우리의 어두움은 빛처럼 될 것이라고 기록하였습니다. 여호와와 우리를 인도하시며, 우리에게 힘주시며 그리고 우리 혼의 필요를 만족케 하실 것입니다.

예수께서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심

예수님께서서는 깨어진 마음을 소유한 자들을 고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눅 4:18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내부(within)에서의 전쟁

성령

구원받기 전에, 우리는 영적으로 죽었습니다. 우리의 혼과 몸은 우리의 삶을 다스렸습니다. 우리가 거듭날 때, 우리는 성령에 의해 태어났습니다.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 산 영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혼이 치료함을 받고, 우리의 의지가 우리 삶의 주(主)이신 예수님께 순종할 때까지, 안(within)에서 계속적인 전쟁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靈)이십니다. 우리가 그 분과 친밀한 사귄을 가질 수 있는 단 한 가지, 유일한 방법은 성령 안에서 살며, 성령 안에서 걸어가는 것입니다.

요 4:24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요 3:5-6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고후 5:17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것이 되었도다.

우리가 거듭나고, 이제 새로운 피조물로서, 영적으로 살아 있을지라도, 우리의 육체적인 몸과 혼은 여전히 우리의 삶을 조종하고 싶어 한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합니다. 우리는 성령 안에서 살고, 성령 안에서 견도록 선택하여야 합니다.

갈 5:16-17, 24-25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좇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니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우리가 우리의 의지를 예수 그리스도 주(主) 되심에 복종시킬 때, 우리는 죄에 대하여 죽는 과정을 시작합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 격한 감정(passions)과 육적 욕심(desire)을 가진 육체를 십자가에 못박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성령 안에서 살고, 걸어갈 수 있습니다.

지성(intellect)

마음(mind)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받지 못한 사람들의 지성(혼의 일부분)은 성령의 일들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러한 일들은 육적 생각(mind)에 미련한 것입니다.

고전 2:13~14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나와 사람의 지혜의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의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신령한 일은 신령한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저희에게는 미련하게 보임이요, 또 깨닫지도 못하나니, 이런 일은 영적으로라야 분별함이니라.

영적인 일들은 정신적으로가 아니라, 영적으로 분별됩니다.

➤ 변화받고 새롭게 됨

우리의 영에 복종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mind)이 변화를 받아야 합니다.

롬 12:1~2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성령의 변화시키는 능력은 뒤로 한 채, 마음(mind)을 새롭게(renew)하려는 심리학이나 상담학의 노력은 언제나 실패할 것입니다. 인간의 추리력을 통해 과거의 상처들을 다루려는 우리 자신의 노력으로는 우리의 마음(mind)은 새로워질 수 없습니다. 마음의 갱신(renewing)은 성령의 초 자연적이고, 변화시키는 역사에 의해서만 성취될 수 있습니다.

➡ **우리의 마음은 단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만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읽고, 공부하고, 묵상함으로
-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고, 성령의 능력과 계시로 가르치는 기름부음이 있는 교사의 가르침을 들음으로
- 하나님의 말씀이 당면한 문제보다 우리에게 더 현실로 다가올 때까지 묵상함으로

예를 들어, 우리가 두려울 경우, 디모데 후서 1 장 7 절 말씀이 나의 개인적인 말씀이 되도록 그 구절을 재구성하여 인용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두려운 영을 주신 것이 아니라 오직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a sound mind)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공부하고, 묵상할 때, 성령께서는 우리의 영을 통해서 그 분의 생각을 우리에게 계시할 것입니다.

사 55:8-9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혼의 치유

치유를 위한 믿음

하나님께서 그 분의 생각을 우리에게 계시하실 때, 믿음은 우리 영(靈) 속에 경중 뛰어 들어 옵니다. 바로 이 믿음이 우리의 혼을 치유하고,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을 풀어 놓습니다.

믿음은 이와 같이 말합니다:

- “나는 더 이상 죄책감과 정죄 아래에 있지 않아! 예수를 통해 나는 하나님의 의(義)를 내 속에 갖고 있어!
- “나는 미래에 병 고침을 받기를 바라지 않아! 하나님의 말씀에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는 이미 나음을 입었다’라고 하셨기에, 나는 전적인 치유(total healing)가 지금 나타날 것이라고 믿어!”
- “몸과 혼도 하나님의 말씀과 맞아 떨어지도록 되어 있어! 내 혼(soul)이 잘 됨 같이, 건강하고 모든 일이 잘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야.”

우리 자신에게나 다른 사람들을 위해 효과적인 사역을 하려면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믿음으로 행해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용서는 치유를 가져 옵니다

➢ 구원 시(時)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과 개인적 회심을 통해 우리가 거듭났을 때, 우리 과거의 모든 죄는 용서함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그 분의 의로움을 받았습니다. 무지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죄책감과 정죄로 고통을 당하여 왔습니다. 우리가 이미 용서함을 받았다는 깨닫지 못한 채 말입니다.

고후 5:21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저의 안에서 하나님의 의(義)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롬 8:1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

니

➤ 구원 받은 후

우리가 신자가 된 이후에 죄를 지을 경우, 우리는 신속히 회개하고 그 죄에서 돌이키고, 하나님께 그 죄를 시인해야 합니다.

요일 1:9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이것은 정말 놀라운 구절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우리 죄를 단지 고백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실 것입니다. 이는 아래와 같이 말함으로 죄를 부인하는 수 많은 사람들이 있는 오늘날 특별히 중요합니다.

“나는 책임이 없어.”

- “내가 어릴 때 취급당했던 방식이야.”
- “그것은 나의 남편의/ 아내의 잘못이야.”
- “내 이웃이야.”
- “나의 경제적인 상황이 그래.”

우리는 우리 사회에서는 우리의 행동(actions)을 다른 사람의 잘못으로 생각하는 법을 배워 왔습니다. 우리는 우리 환경의 별 쓸모없는 소산(所産)이라고 가르침을 받아 왔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정직하게 우리가 한 행동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리고 죄로 올바르게 인식하고 하나님께 고백해야 합니다. 믿음으로, 우리는 우리가 용서 받았다는 충분한 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용서함으로

용서하지 못함에는 세 가지 공통된 영역이 있습니다:

- 다른 사람들
- 우리 자신
- 하나님

마 6:14-15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면 너희 천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용서할 때 우리는 우리 혼이 치유됨을 발견합니다. 용서는 상황을 종결시키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종종 우리는 사람들이 이처럼 얘기하는 것을 듣습니다. “그들은 용서 받을 자격이 없어,” 혹은 “그들은 자신들이 잘못했다는 것을 인식조차 못하고 있어!” 우리가 용서하기 앞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전제들을 결코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용서를 받고 싶어하지 않을 지도 모릅니다. 이러한 모든 것들은 우리가 용서하는데 별 영향을 주지 못하도록 해야 합니다.

➤ 우리는 자유함을 받을 가치가 있습니다

➡ **관련된 사람들이 용서 받을 자격이 없을 지라도, 우리는 그 상처로부터 자유로워질 자격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유로워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용서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어릴 때 학대를 받았을 경우, 그 학대자는 결코 그것을 인식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들이 처벌받는 것을 보고야 말겠다고나 도로 상처를 갚아 주겠다고 하는 욕망을 계속해서 붙들고 있지 마십시오. 심지어 자신이 고통을 느끼고 있는 권리조차 붙들지 마십시오.

우리가 용서하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를 집요하게 계속해서 따라 다니는 기억들로 그 사람이 계속해서 우리를 상처 주도록 허용하는 꼴이 됩니다. 우리가 처음 상처 받았을 때 만큼 이나 끔찍한 속박 속에 우리를 가두어 두는 셈입니다.

➡ **우리는 더 위대한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학대의 결과로부터 자유로워질 자격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을 용서하십시오!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손에 맡기십시오. 그리고 나서 풍성하고, 온전한 삶으로 나아가십시오.

➤ 그것은 순종입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우리에게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마 18:21~22 그 때에 베드로가 나아와 가로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일곱 번까지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네게 이르노니, 일곱 번 뿐 아니라 일흔 번씩 일곱 번이라도 할지니라.”

엡 4:32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막 11:25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셨더라.

우리는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다른 사람들을 용서해야 합니다. 우리 속에 지금 살고 계시는 예수님께서 용서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용서할 수 있습니다. 용서는 우리가 용서하고 싶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용서하는 것이 아닙니다. 용서는 선택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함으로 행해야 하는 행동입니다.

잊어버림으로써

우리는 원한을 품지 않음으로써 우리의 혼의 치유를 얻을 수 있습니다.

엡 4:26~27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빌 3:13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우리가 용서를 안한 채로 있고, 성냄을 그대로 갖고 있게 되면 마귀에게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감정적인 영역에서 우리를 공격하도록 장소를 제공해 주게 됩니다.

용서한 후에, 우리는 예수님의 치유의 능력을 우리의 상한 심령 속으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우리의 놀러있던 혼들은 풀려나오고, 자유롭게 됩니다.

눅 4:18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과거의 부정적인 일들에 관해 계속해서 이야기 하게 되면, 그리고 예전의 모든 상처들과 긴장 그리고 분노가 여전히 남아 있게 되면, 우리는 그 상황 가

운데 있던 모든 이들을 진정으로 용서할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아니면, 우리 혼의 적(敵)이 우리에게 온갖 “쓰레기”를 버리도록 허용하고 있는 것이 됩니다.

일단 우리가 용서하면, 우리는 당분간 자꾸 생각나는 기억들과 싸워야 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마침내 우리는 용서했을 뿐만 아니라 모든 상처들을 잊어버리게 되고, 그것으로부터 풀려나 있는 것을 발견할 것입니다.

안식과 회복

우리는 하나님의 안식과 회복을 통해 혼을 위한 치유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혼은 그 날, 그 날의 일반적인 걱정거리에 의해 자주 압박감을 받습니다. 우리는 너무 바빠서 하나님과 함께 보낼 시간을 갖지 못했거나 정말 우리가 하고 싶은 것들을 하지 못했습니다.

어렵더라도, 우리는 우리의 우선 순위들을 재고해야 합니다. 너무 많은 계획 (projects)을 떠맡아 수행해야 할 때, “No”라고 말하는 법을 배우십시오.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고, 그 분이 말씀하시는 것만을 하는 것을 배우십시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마 11:28-29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히브리서 기자(記者)는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는 것에 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히 4: 1~3a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 있을지라도 너희 중에 혹 미치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저희와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그러나 그 들은 바 말씀이 저희에게 유익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을 화합지 아니함이라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그 말씀하신 바와 같으니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저희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믿음과 자기-수련(self-discipline)으로 우리는 순간, 순간 안식에 들어가 우리의 혼 안에서 평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당신의 치유에 대해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사람의 혼을 위한 치유가 있습니다. 비록 우리가 하나님께 파손된 의미의 추리력과 감정을 가지고 나올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충실하게 이행하게 되면 치유가 있습니다.

시 103:1~5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 성호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저가 네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네 모든 병을 고치시며, 네 생명을 파멸에서 구속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네 소원을 만족케 하사 네 청춘으로 독수리 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찬양은 우리 믿음의 표현입니다. 우리가 지금껏 공부한 각 영역에서 하나님께 순종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총체(wholeness), 곧 혼과 몸의 온전한 나타남(full manifestation)을 받은 줄로 믿으며, 믿음으로 우리 혼의 병 고침을 위해 하나님께 구할 수 있습니다.

막 11:24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혼과 몸을 위해 병 고침을 준비하셨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바대로 곧 하나님의 형상 - 혼과 몸 - 으로 회복될 수 있는 것에 대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안으로부터 치유되었다는 것을 알면 얼마나 기쁘지 모릅니다! 우리의 혼이 치유되었기 때문에, 사탄은 우리 몸에 병약함이나 질병을 씌울 권리나 장소, 열린 문이 더 이상 갖고 있지 못합니다.

우리는 건강함 속에서 계속 걸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담대하게 다른 사람들에게 병 고침의 사역을 행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것은 우리 언약적 권리입니다. 진실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신을 여호와 라파 - 여호와는 우리의 치료자 - 로 계시하셨습니다.

주의: 이 주제에 관해 더 많은 가르침을 알기 원한다면, A.L.과 Joyce Gill의 저서 **새로운 피조물에 대한 형상**을 읽어 보십시오.

문 제

1. 혼의 세 부분을 설명하시오.
2. 혼과 영 사이에 일어나는 전쟁을 당신 말로 설명하십시오.
3. 혼의 치유를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 설명하십시오.

제 9 과

성령과 그분의 은사들

성령의 나타남

고린도 전서 12 장에 수록된 성령의 9 가지 은사들 중의 하나는 병 고침의 은사(the gifts of healing) 입니다. 우리가 병 고침 사역을 할 때 많은 은사들이 함께 흐르고 작동하기 때문에 병 고침의 은사를 복수로(역자 주: 개역 성경에서는 단수로 번역되었음) 언급하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성령 충만한 믿는 자들을 통해서 그분의 병 고치는 능력을 시행하실 때 병 고침의 은사들은 나타납니다. 그 은사들은 우리의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의 은사들이 필요한 자들에게 은사들을 전달하기 위해 성령께서 사용하시는 그릇입니다.

우리가 성령님과 깊은 인격적인 사귀를 갖게 될 때, 이들 은사들은 이 은사들이 필요로 하는 각기 다른 때에(at several time) 우리를 통해 작동할 것입니다.

삼위 하나님 가운데 한 인격(Person of the Godhead)

➡ **하나님은 본질상(in essence) 한 분이시지만, 구별되는(distinct)**

세 인격체(three persons)이십니다. 삼위 하나님의 각 인격체는 동등하시며, 모든 하나님의 성품(attributes)을 함께 가지고 계십니다. 그리고 각 인격체인신 하나님은 독립적으로 계시되시며, 분명한 역할(function)과 인격성(personality)을 가지고 계십니다.

성부 하나님(the Father), 성자 하나님(the Son)과 꼭 같이 성령 하나님(the Holy Spirit)께서도 모든 믿는 자 한 사람과 개인적으로 친밀한 교제를 원하십니다.

고후 13:14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박히셨으나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으셨으니 우리도 저의 안에서 약하나 너희를 향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저와 함께 살리라.

바울은 “성령과의 친교(communion)”에 관하여 설명하였습니다. 친교는 헬라어로 “코이노니아”입니다. 그 뜻은 협력(partnership) 또는 참여(participation)입니다. 우리는 성령과 협력 관계에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분과 함께 참여

해야 하고, 사귀어야 합니다.

보혜사(Helper) 또는 위로자(Comforter)

요한 복음의 4 개의 독립적인 구절에서 성령은 보혜사로 언급되고 있습니다. 킹 제임스 역은 그 이름을 위로자라는 이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원(原) 헬라어로 “파라클레토스” 이고 그 뜻은 ‘누구 편으로 부름을 받음’ (called to one’s side)입니다. 그 말은 중보자 또는 상담자로 도움을 주는 융통성(adaptability)을 간접적으로 알려 줍니다.

성령은 우리와 함께 걷기 위해, 그리고 친밀한 친교로 사귀기 위해 우리의 보혜사(Helper)로 우리 편에 부름을 받으셨습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중보하시며, 위로하시며, 위로하십니다.

“내가 가는 것이 제자들에게 유익이다” 라고 말씀 하심으로 예수님께서서는 그의 제자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이 말씀을 하심으로, 예수님께서서는 자신이 육체로 우리 곁에서 걸으셨던 것 보다 훨씬 더 친밀히 우리 쪽에서 계시는 성령님을 우리가 가치 있게 여기며, 귀하게 생각하며, 감사할 것이라고 분명히 하셨습니다.

요 16:7 그러하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요 14:15, 요 14:26 그리고 요 15:26 에서 있는 예수님의 말씀에 따르면, 성령님은 예수님을 증거하실 것이며, 우리에게 모든 것들을 가르치시고, 그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기억나게 하실 뿐 아니라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성령님을 알아 감

예배와 기도 시(時) 아버지와 아들과 함께 가지는 우리의 친밀한 사귀음을 값지게 여기는 것과 꼭 같이 우리는 돕는 이로, 위로자로, 상담자로, 교사로, 인도자로 우리 편에 계시는 성령님의 지속적인 임재(臨在)를 값지게 여기고, 감사해야 합니다.

성령의 능력은 폭발적이고, 경이롭고, 측량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분은 무관심과 불순종과 죄로 인해 슬퍼하시거나, 꺼질 수 있는(quenched) 매우 점잖으시고(gentle), 주의 깊으시며(caring) 사랑이 많으신 인격체이십니다.

➤ 우리 안에 거하심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사람으로 사역하셨기 때문에, 단지 한 번에 한 장소에 만 계실 수 있었습니다. 성령과 예수님께서 우리 각자의 삶 속에서 계속해서 거하시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에게 이것이 얼마나 대단한 것입니까?

요 14:16-17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 우리를 가르치심

성령은 우리의 선생이십니다.

고전 2:13a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의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의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신령한 일은 신령한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위기 때 우리에게 할 말을 주실 분은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눅 12:11-12 사람이 너희를 회당과 정사 잡은 이와 권세있는 이 앞에 끌고 가거든 어떻게 무엇으로 대답하며 무엇으로 말할 것을 염려치 말라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곧 그 때에 너희에게 가르치시리라 하시니라.

➤ 능력을 주심

우리가 작동할 수 있는 그 능력은 바로 성령의 능력입니다.

행 1:8a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 담대함을 주심

성령은 우리에게 담대함을 줍니다.

행 4:31b ...우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 인도하심

성령님은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눅 2:26 저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눅 4:1a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 강에서 돌아 오사 광야에서 사십 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행 13:4a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행 16:6a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 사랑을 주심

성령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계시하시는 유일한 분(the One) 이십니다.

롬 5:5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 의와 평강과 기쁨

성령을 통해서, 우리는 의로움과 평강과 기쁨을 가집니다.

롬 14: 7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구속의 보증

성령은 우리 기업(inheritance)의 보증이십니다.

엡 1:13~14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의 기업에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구속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 하심이라.

엡 4:30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은사들을 나타내심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9 가지 영적 은사들을 주셨습니다. 이 많은 은사들은 병든 자를 고치는데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이들 은사들을 사용하여, 사역하는 방법을 배울 수 있고, 사역을 함에 있어 효과적일 수 있을 것입니다.

고전 12:1, 7~10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는 내가 너희의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남을 주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 어떤 이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은,
- 어떤 이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은,
- 다른 이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 어떤 이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 어떤 이에게는 능력 행함을,
- 어떤 이에게는 예언함을,
- 어떤 이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 다른 이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 어떤 이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우리의 삶 속에서, 성령의 은사들의 작동은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하신다는 표적입니다. 이들 은사들은 우리 개인의 교만한 명성을 세우기 위해서 사용되어서는 결코 아니 되겠습니다. 이들 은사들은 병든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 보이기 위해 어떤 과시(show)나 허세(fanfare)를 부리지 않고, 정상적으로 흘러가도록 해야 합니다.

성령의 6 가지 은사들과 그 은사들이 병 고치는데 어떤 관련이 있는지, 아래의 항목(項目)에서 공부하려고 합니다.

영 분별의 은사

정의

- ▶ 영 분별은 영계(靈界)의 영역에 대한 초 자연적인 통찰력입니다. 이 은사는 사람이나 상황 혹은 행동, 전한 말씀 배후에 있는 영들이나 영들의 종류를 계시합니다. 이것은 어떤 영의 근원(source), 본체(nature)와 활동(activity)에 관련된 초 자연적인 계시가 음으로써 우리 영 안에서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 은사의 역사를 통하여 영적인 영역(realm)에서 분별될 수 있는 분야(area)가 3 가지 있습니다.

- > 하나님의 영 혹은 하나님의 천사들
- > 사람의 영
- > 사탄 또는 귀신들(demon spirits)

병마(spirit of Infirmity)

한 개인의 질병(disease)과 병(sickness)의 원인은 종종 병약함의 귀신들 때문입니다. 암과 관절염, 분노, 그리고 쓴 뿌리의 영들이 그러한 예들입니다. 성령께서 그 사람이 자유함을 받고, 병 고침을 받을 수 있도록 영 분별의 성령의 은사로 계시하시고, 문제의 정확한 근원에다 손가락을 대실 것입니다.

눅 11:20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finger)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
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어떻게 이 은사가 작동하는가?

성령에 의해 인도 받을 때, 영 분별의 은사가 문제의 근원이 되는 영의 이름이나 정체를 나타내 주는 인상이나 혹은 생각으로 나타날 것입니다.

마 9:32-33 저희가 나갈 때에 귀신 들려 병어리 된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귀
신이 쫓겨나고 병어리가 말하거늘 무리가 기이히 여겨 가로되, “이스라엘 가운데서 이런 일을 본 때가 없다!” 하되

영계에서 역사하고 또 영적 싸움을 가장 효과적으로 싸우기 위해서 우리는 영 분별의 은사의 역사를 이해하고 또 우리 스스로가 이에 수궁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이 은사를 통해서,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권능을 부여하실 것입니다.

지식의 말씀

정의

- ▶ **지식의 말씀이란 어떤 사람이나 상황에 대한 현재나 혹은 과거의 어떤 사실들을 알려주는 성령에 의한 초자연적으로 계시입니다. 이 사실들은 육의 생각으로는 전혀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 은사는 자연적으로 알려지지 않은, 하나님으로 부터 오는 정보를 제공합니다.**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

사마리아 여인의 이야기에서, 예수님은 지식의 말씀으로 이 여자에게 남편이 다섯이 있었고, 지금의 남편도 결혼한 남편이 아니라는 것을 아셨습니다.

요 4:18 ...네가 남편 다섯이 있었으나, 지금 있는 자는 네 남편이 아니니; 네 말이 참 되도다.

이 여자에 관한 지식은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아들이(the Son of God)이어서가 아니라, 오히려 인자(the Son of Man)로서 성령의 은사로 역사하셨기(was operating) 때문에 예수님께 임했습니다.

병 고침을 위한 지식의 말씀

종종 병 치유를 사역하는 도중 하나님께서 그가 고치시기를 원하시는 어떤 특정한 병에 대해 지식의 말씀으로 계시해 주실 것입니다. 어떤 때는 그것은 한 특정한 사람을 위한 것이며 또 어떤 때는 여러 사람들을 위한 것입니다.

그것은 질병의 이름으로 통증의 장소로 혹은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그의 병 치유를 나타내시려고 바라시는 몸의 부분의 이름을 밝힘으로써 나타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오는가?

병 치유를 사역하는 동안 지식의 말씀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오게 됩니다.

- 사역하는 사람의 몸에 다음과 같은 불편한 느낌으로 오는데 종종 놀림, 따끔거림, 혹은 감동으로 묘사됩니다.
- 어떤 때는 약한 통증으로 느껴질 것입니다.

지식의 말씀은 연약함, 질병, 혹은 통증을 묘사해주는 단어나 혹은 생각으로 나타납니다.

- 질병의 이름
- 병든 몸의 부위의 이름

지식의 말씀은 또한 병 고침을 요하는 몸의 부분에 관한 “환상(vision)”으로 올 수 있습니다.

➤ 병든 자가 계시 됨

때로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이 있는 장소나 혹은 병 고침이 나타날 바로 그 사람까지 정확히 보여주시기 까지 하십니다. 이것은 때때로 실내의 그 쪽 부분이나 혹은 특정 통로쪽, 혹은 심지어 그 사람이 있는 정확한 장소로 향하여 이끌어감(마치 자석에 의하여 끌려가듯)으로 묘사됩니다.

다른 때에는 이것은 빛이나 혹은 섬광, 아니면 어느 특정한 사람에게로 당신

의 관심이 끌려가는 느낌으로 올 수 있습니다.

어떤 때는 주님께서 그 사람의 이름이나 아니면 다른 신분확인을 계시함으로, 성령께서 특정한 치유를 위하여 그 사람을 불러내신 것임을 확실하게 해 줄 것입니다.

믿음이 풀려나움

성령께서 지식의 말씀으로 특정한 병 고침을 계시하실 때, 당사자가 즉시 그 묘사된 사람이 본인임을 인정하면, 믿음이 풀려나오게 되며, 병 치유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심부름 영들(Familiar spirits)에 대한 경고

이러한 은사로 역사하는 사람은 자신이 심부름 영들에게 귀를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지식의 말씀을 받고 있는지 신중을 기해야 됩니다. 심부름 영들의 존재를 분별하는 간단한 방법은 누가 영광을 받는가를 살펴보는 것입니다.

- 사역하는 자가 자기 자신과 자신의 능력에 관심을 모으고 있는가?
- 사람들이 관람객들이 되어서 “홍행(show)”를 즐기고 있는가?
- 지식의 말씀의 역사로 인해서 청중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대한 더 높은 차원의 믿음을 가져왔는가? 아니면 사역하는 사람에게 대한 믿음을 가져왔는가?

성령님은 절대로 한 개인에게 영광을 돌리지 않고, 언제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실 것입니다!

기꺼이 나서서 발언해야 함

이 지식의 말씀의 분야에서 사역하는 것을 배우는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특정한 계시를 받을 때에는, 믿음으로 나서서 그 말씀을 발언해야 합니다.

- 만일 우리가 틀릴지라도, 우리는 기꺼이 어리석게 보일 각오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 실패의 두려움으로 인하여 주저앉아 있으면 안됩니다.
-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하여, 믿음으로 나서서 하나님께서 병 고침으로 영광 받으시도록 해야 합니다.

지혜의 말씀

정의

➡ 지혜의 말씀이란 믿는 자에게 주어지는 초 자연적인 계시입니다. 이 은사는 자연적이고, 초 자연적인 지식을 근거로 해서 일련의 행동을 취하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 우리의 삶과 사역을 위한
- 즉시 혹은 미래의 어느 때에 성취되도록
- 어떤 필요에 대해 우리가 어떻게 사역해야 할 지에 관한

지혜의 말씀은 여러 형태로 옵니다: 내적 음성, 깨어 있을 때오는 환상을 통해, 잠잘 때 꿈을 통해, 발성 은사들의 역사함을 통해서 옵니다.

병 고침에 있어서

지혜의 말씀은 영 분별의 은사와 지식의 말씀과 함께 밀접하게 역사 합니다. 이 은사는 어떤 특별한 필요에 대해 어떻게 사역해야 할 지에 관한 계시입니다.

지혜의 말씀은 보호(protection)와 가르침을 위해 주어집니다. 그리고 종종 지식의 말씀과 영 분별을 통해 계시된 지식을 어떻게 적용할 지 나타내 보여 줍니다. 이 은사는 어떠한 방법으로 사역할 지 통찰력을 제공합니다.

지혜의 말씀은 우리에게 이와 같은 것들을 가르쳐 줍니다.

- 사람에게 안수하도록
- 어떤 말을 하도록
- 어떤 창조적인 기적을 행하도록
- 귀신을 쫓아 내도록

지혜의 말씀은 병 고침의 은사들로 사역하는데 효과적일 수 있도록 지혜를 우리에게 제공합니다. 이 은사는 담대히 사역을 수행하도록 하는 믿음을 만들어 줍니다.

믿음의 은사

정의

- ▶ 믿음의 은사는 특정한 시간과 목적을 위한 초자연적인 믿음입니다. 이것은 당신이 어떠한 상황에 처해있든지 간에 그 특정한 시간에 어떤 과업을 수행할 수 있게 하는 ‘권능의 은사’입니다.

초자연적임

믿음의 은사는 사역하는 사람쪽에서의 어떠한 노력함이 없이, 초자연적으로 옵니다.

- ▶ 이것은 모든 믿는 자에게 주어진 믿음의 분량이 아닙니다.
- ▶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함으로 오는 믿음이 아닙니다.
- ▶ 이것은 특별한 기적이 요구될 때 성령에 의하여 초자연적으로 오게 됩니다.

▶ 기적들과 함께

믿음의 은사는 때때로 어떤 창조적인 기적이 나타날 때 주어집니다. 갑자기, 사역하는 사람은 영 안에서 몸의 없어진 부분이 회복되고 있음을 볼 것입니다. 이것은 지혜의 말씀의 영적 은사의 역사함입니다.

예

베드로가 앓은뱅이에게 담대하게 말했을 때, 그에게 믿음의 은사가 주어졌던 것으로 보입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네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사도행전 3:6)

기적 행함

정의

- ▶ 기적 행함의 은사는 자연의 정상적인 과정에 대한 초 자연적인 개입(intervention)입니다. 이 은사가 역사하면, 하나님의 능력의 초 자연적인 나타남으로 자연 법칙이 변경되거나, 정지 혹은 조종됩니다.

창조적인 기적의 형태로, 물리적인 육체의 회복을 가져오기 위해 사용될 때, 이 은사는 병 고침의 은사들 중의 하나로 역사하게 됩니다.

창조적인 기적들

자주, 사람들의 신체 부위들이 우연한 사고나 외과 수술 또는 태어날 때부터의 결함 혹은 악성 질병으로 인해 잃어 버리고 있습니다. 아마도 우리의 믿음은 창조적인 기적이 일어 나도록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수준까지 자라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필요로 하는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의 지식에 확고 부동하게 기초를 두어야 합니다.

말씀으로 계시 됨

우리는 창조적인 기적들에 관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하는 바를 읽고, 공부하고, 묵상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에게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마 19:26 예수께서 저희를 보시며 가라사대,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예수님께서서는 창조적인 기적의 사역을 수행하셨습니다.

막 3:3, 5b 예수께서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한 가운데 일어서라.” 하시고, 저희 마음의 완악함을 근심하사 노하심으로 저희를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네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우리는 예수님께서 하신 그와 똑 같은 일들을 우리가 할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음을 알고 있습니다.

막 9:23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지혜의 말씀 - 믿음의 은사

갑자기, 지혜의 말씀이 인상이나 환상의 형태로 우리의 영에 뛰어 들어 올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방법으로, 그 사람에게 창조적인 기적을 수행하고 있는 우리 자신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그 창조적인 기적이 실제 물리 세계에서 일어나기 전에, 성령 안에서 그것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더 이상 애써 믿으려 할 필요가 없습니다. 믿음의 은사가 우리 영에게 임했습

니다. 우리의 믿음은 기적이 일어날 것이라는 담대한 확신으로 과급(過給, supercharged)합니다.

기적 행함

우리는 이미 성령 안에서 우리 자신들이 행하고 있는 것을 본 바를 즉시 행동에 옮겨 놓게 됩니다. 이것이 기적 행함입니다.

우리는 조직과 뼈와 장기들이 새로이 조성되라고 담대하게 말하며 명령하기 시작합니다. 창조적인 기적의 나타남이 완전하여 질 때 까지, 우리는 우리 믿음의 긍정적인 기대를 가지고 창조합니다.

우리와 함께 동역하시는 예수님

우리는 예수님께서 초대 교회 모든 믿는 자들과 함께하신 것처럼, 우리와 함께 동역하시는 바로 그 곳에 계심을 압니다.

막 16:20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새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울 확실히 증거하시니라.

병 고치는 은사들

정의

- ▶ 신유의 은사들은 하나님의 병 고치는 능력을 병 치유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초자연적으로 넣어 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많은 은사들이 병 고치는 은사로 함께 흘러가고, 역사하기에 은사들(복수)로써 묘사 됩니다. 병 고침을 받은 사람이 신유의 은사들을 받은 것입니다.

초 자연적임

병 고침의 영적 은사들은 의학과 같지 않습니다. 누가 복음과 사도 행전의 기자(記者)인 누가가 좋은 예입니다. 골로새서를 쓰면서, 바울은 그의 신분이 의과 의사임을 밝혔습니다.

골 4:14 사랑을 받는 의원(physician) 누가와 또 테마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누가는 바울과 함께 멜리테(malta) 섬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누가에게 찾아오는 환자에 대해서는 일체 언급이 없습니다. 바울이 보블리오를 고친 후, 사람들이 다른 병든 자들을 바울에게 데려와 고침을 받았습니다.

행 28:8, 9 보블리오의 부친이 열병과 이질에 걸려 누웠거늘 바울이 들어가서 기도하고 그에게 안수하여 낮게 하매 이리므로 섬 가운데 다른 병든 사람들이 와서 고침을 받고

주의: 우리가 사역할 때, 우리는 의학과 의사들과 함께 동역하며, 균형잡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병 고침을 받을 수 있을 만큼 강하도록 성장할 수 있을 때까지, 의사들이 우리가 살아 있도록 했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 중 많은 이들이 생존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병 고치는 은사들과 의학을 혼동하지 마십시오.

어는 누구에게도 그들이 복용하고 있는 약을 끊으라든가 또는 의사를 찾아가지 마라고 결코 말하지 마십시오. 그들이 나왔을 때, 그들은 더 이상 약을 필요로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의 담당 의사가 약을 처방했기 때문에, 그 환자들에게 약을 감소하여 복용하라고 말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은 담당 의사입니다!

병 고침 은사의 목적

병 고침 은사에는 세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 **병 든자들을 자유케 하기 위해**
- **사람 몸에 있는 귀신(the devil)의 역사를 깨뜨리기 위해**
- **기사와 표적을 통해 구원의 메시지를 확증하기 위해**

우리가 성령과의 더욱 친밀한 교제 속으로 들어감에 따라 병 고치는 은사들과 다른 성령의 은사들이 우리를 통해 흘러나오고, 역사할 것입니다.

지식의 말씀으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 또는 어떤 질병을 고치기를 원하시는지 계시하는 초 자연적인 지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영 분별의 은사는 축사가 필요한 질병의 마귀적인 근원(a demonic source)을 나타내 보여 줄 것입니다.

지혜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그 사람에 대해 어떻게 효과적으로 사역할 지에 관한 초 자연적인 계시를 받습니다. 우리는 그 일을 하고 있는 우리자신을 봅니다. 우리는 병 고침이나 혹은 기적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이 은사는 믿음의 은사를 풀어 놓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담대히 기적 행함의 사역을 시작하게 됩니다.

우리가 성령의 모든 은사들로 사역하는 것을 배우고, 믿음으로 이 은사들이 우리 의 삶 속에서 흘러 나가고, 역사하기를 기대하면, 방언으로 메시지를 주는 것이나 또는 성령의 어떤 다른 은사들을 작동하는 것과 꼭 같이 기적 행하는 것이 쉽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주의: A.L.과 Joyce Gill 의 저서 성령의 은사들을 통한 초 자연적인 삶이 성령의 은사들에 대한 보다 깊은 연구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문 제

1. 성령님은 누구시며, 성령께서 우리의 삶 속에서 무슨 일을 하시는지 설명하십시오.
2. 병든 자를 위해 기도할 때, 영 분별이 어떻게 도움되니까?
3. 우리가 병 치유와 창조적 기적들을 사역하는 도중에 지혜의 말씀과 믿음의 은사의 역사함을 설명하십시오.

제 10 과

병 고침 받음과 당신의 병 고침을 간직함

이 과(科)에서 우리는 병 고침의 방해물과 우리의 병 고침을 간직하는 방법에 대해서 공부할 것입니다. 많은 경우, 우리로 하여금 병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는 것들은 다음과 같은 것들입니다. 바로 ‘원 상태로 돌아가게 되면’ 이라고 하는 생각들이 그들의 건강을 잃게 만들 것입니다.

이 과의 첫 부분은 우리가 이미 배운 것들에 대한 복습입니다. 우리의 삶의 초점을 이 진리들에 맞추어야 할 시간입니다.

병 고침의 방해물들

어떤 사람이 병 고침의 나타남을 받지 못할 때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사람은 주님과 시간을 보내며 그 원인을 찾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원인을 찾는 동안, 정죄감을 받아들이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정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 아들의 형상으로 변화시킬 때, 하나님의 의로 바로 잡으시고, 가르치십니다.

당신이 지금 당장, 병 고침을 위해 하나님을 믿으려 한다면, 여기서 멈추고, 성령님께 왜 당신이 당신 병 고침의 나타남을 받지 못했는지 이유를 당신에게 계시해 달라고 요청하십시오. 당신이 이 연구 과정을 꼭 배워 온 대로,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무엇을 계시하시든지 신속히 행하십시오.

우리에게 묻는 질문들

➤ 용서하지 않은 죄

➡ **나와 하나님 사이에 장벽을 형성하는 용서하지 않은 죄가 있지 않습니까?**

죄는 혼에 상처를 주며, 병마가 우리의 몸에 질병을 가져 다 주도록 문을 열어 놓습니다. 알려진 죄를 하나님께 고백하고, 하나님의 용서함을 받는 것은 병 고침을 받는데 반드시 필요합니다.

약 5:15-16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얻으리라. 이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의 힘은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용서하지 않은 죄는 질병이 계속 머무르도록 허용하는 꼴이 됩니다. 사탄은 이 죄를 우리로부터 숨기려고 할지 모릅니다. 우리가 이것을 합리화하려고 할 순 있지만, 질병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의 용서함을 받기 위해서, 우리는 이 죄를 반드시 하나님께 고백해야 합니다.

마 9:2, 5-8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소자야 안심하라;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네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거늘 무리가 보고 두려워하며 이런 권세를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우리 삶 속에 어떤 죄가 있다면, 우리는 그 하나님께 고백하고, 용서함을 받아야만 합니다.

요일 1: 9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 다른 사람들에 대한 용서하지 않음

➡ 나는 나에게 상처 준 모든 이들을 용서했습니까? 나는 내 자신을 용서했습니까? 나는 하나님을 용서했습니까?

수 년 동안 사람들을 대상으로 사역하면서, 그리고 다른 사역자들과 이야기하면서, 우리는 용서하지 않는 것이 어떤 사람이 병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는 가장 주된 원인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 자신을 용서하는 것보다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는 것이 더 쉽습니다. 우리는 사람들이 이 같이 이야기하는 것을 듣습니다. “어떻게 내가 그렇게 명칭할 수가 있었는지. 왜, 내가 나를 이런 상황 속으로 빠져들게 했을까?” 우리는 얼마나 자주 다른 사람에게 핑계를 대고, 그리고 우리 자신의 완전무오(完全無誤)를 바라고 있습니까?

여러분 자신을 용서하십시오!

끔찍한 일이 발생할 때, 사람들은 종종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도록 했을까? 그는 하나님이셔서! 그 분은 그것을 막을 수도 있었어!”

여러분이 처한 상황이 이와 같다면, 당신의 감정들을 정직하게 하나님께 고백하십시오. 하나님은 당신이 어떻게 느끼시는지 이미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 제가 오해했습니다. 저는 당신이 사랑의 하나님이신 줄 압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제가 상상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저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압니다. 저는 이제 나의 삶의 이런 비극의 원인이 하나님 당신이 아니라 사탄이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저는 저의 삶의 비극으로 인해 하나님을 대적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하나님께 용서를 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부정적인 이 모든 감정들을 풀어 버립니다.”

막 11:24~25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셨더라.

➤ 무가치함, 죄책감, 정죄

➡ **하나님의 용납하심을 받아들이지 못하도록 하는 무가치함, 죄책감, 정죄의 느낌을 내가 허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마귀의 가장 음흉하고, 무시 무시한 무기들은 무가치함과 죄책감과 정죄감입니다. 죄책감은 죄의 고백과 믿음으로 용서함을 받아들이면 해결됩니다. 죄책감의 감정들이 계속되면, 이러한 감정들은 무가치함과 정죄감과 함께 사탄으로부터 옵니다.

우리의 가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義)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께 당당히 설 수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무가치하게 느낀다면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과 그분의 의(義)와 그 분 안에서의 우리의 지위를 부인하는 하는 것입니다.

롬 8:1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고후 5:21 하나님은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저의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

그러한 감정들을 거절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기 시작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강해지십시오.

➤ 잘못된 소망

➡ 나는 미래의 어느 때에 병 고침을 받을 것이고, 그런 믿음의 수준을 가질 것이라는 잘못된 소망과 현혹을 허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믿음은 진정한 소망 뒤에 옵니다. 진정한 소망은 미래에 우리가 원하는 바, 병 고침의 나타남을 받을 것이라고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거나 읽을 때, 우리는 절망에서 소망으로 옮겨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소망에서 믿음으로 옮겨가지 않는다면, 그것은 거짓된 소망이 될 수 있습니다.

히 11:1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우리가 우리의 병 고침에 대해 소망할 때, 소망한다는 것은 병 고침을 위한 믿음을 우리가 받지 못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의 어느 시점에 병 고침을 받을 것으로 기대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많은 경우, 사람들은 어떤 미래의 일어날 사건이나 시간이 올 때, 자신이 병 고침을 받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자주, 그들은 자신들에게 비 현실적인 기대를 갖게 하고, 그리고 나서 자기 정죄감 속으로 빠져 듭니다.

믿음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잘못된 소망은 현혹(delusion)입니다. 그것이 사탄이 우리로 받아들이지(to accept) 못하도록 간절히 원하는 병 고침의 방해물입니다.
- 그것을 거절하십시오!

➤ 잘못된 가르침

➡ 나로 하여금 병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는, 과거에 받아들인 잘못된 가르침의 씨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되는 가르침 혹은 좋은 가르침의 결여는 사탄으로 하여금 법적으로 정당한 우리의 소유를 기독교인들로부터 훔쳐가도록 허용했습니다.

- 병약함(sickness)은 하나님의 뜻이다.
- 고통은 당신에게 인내를 가르칠 것이다.
- 질병(disease)은 당신을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게 할 것입니다.
- 고난(역자 주 - 질병으로 인한 suffering)은 하나님께 영광을 가져 올 것입니다.

당신이 받아들였던 모든 거짓된 가르침을 취하고, 이렇게 말하십시오, “나는 오늘것들을 거부한다.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되는 모든 생각들은 드러나며, 내 생각으로부터 떠나 갈 것을 명령한다.”

➤ 의심과 불신앙

➡ 나는 내 마음에 불신앙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불신앙은 과거의 가르침이나 우리 삶 가운데서 미해결된 죄 또는 과거에 우리의 병 고침을 위해 하나님을 믿으려고 노력했으나, 실망했던 때로부터 올 수 있습니다. 불신앙은 믿음의 반대입니다.

우리가 불신앙과 싸우려면, 우리는 이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주님, 저의 불신앙을 도와주소서!” 그리고 나서, 병 고침에 관해서 하나님 말씀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묵상하십시오.

막 9:24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가로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 자연적인 감각에 의지함

➡ 나는 나의 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 보다 나의 자연적인 감각을 신뢰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자연적인 감각을 가지고, 우리는 우리가 보고, 듣고, 만지고, 냄새 맡거나 혹은 맛볼 수 있는 것들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의 계시가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그 어떤 것보다도 더 실재적이며, 현실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의심하는 도마를 생각해 봅시다.

요 20:24~28 열두 제자 중에 하나인 디두모라 하는 도마는 예수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가로되, “내가 그 손의 못 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 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 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네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네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 보라. 그리하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니이다!”

도마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여전히 가장 좋은 답변입니다.

29 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는 나를 본 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주님, 주의 말씀이 가르치신 바가 제가 보고, 듣고, 만지고, 냄새 맡거나 혹은 맛볼 수 있는 어떤 것들 보다도 저에게 더 현실적이 되게 하옵시고, 저를 더욱 더 성령의 영역 속으로 옮겨가게 하옵소서. 그리고 주의 말씀을 더욱 믿게 하옵소서!”

전쟁을 치르기 위해 무장함으로 병 고침을 간직하라

원수를 올바르게 인식할 것

마귀는 강도요, 도둑입니다. 그는 우리 건강의 원수입니다.

요 10:10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 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마귀는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고자 옵니다.

벧전 5:8~9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앎이니라.

사탄은 우리의 몸, 혼과 영의 원수입니다. 우리는 사탄의 전략을 올바르게 인식하고, 우리의 삶 속에서 그를 패배 시켜야 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강건하라

우리는 주 안에서 강건하여지고, 갑주를 입고, 항상 근신하고 또 모든 전쟁을 이길 태세를 갖추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위대한 전사인 바울 사도는 이에 관해, 우리에게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엡 6:10~13 종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사탄의 화살들을 분별하라

마귀는 통증, 증상들과 부정적인 생각들 그리고 의심의 그의 불화살들을 써서 우리의 건강을 도적질하려고 합니다.

엡 6:16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화전(火箭)을 소멸하고

우리는 사탄의 공격을 대적할 만한 믿음의 방패를 받았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믿음의 방패를 담대하게 계속 사용하면 통증, 증세들과 의심의 부정적인 생각들이 우리를 멀하지 못할 것입니다.

▶ 부정적인 생각들

우리는 우리의 생각들을 점검해서, 의심이 우리 마음 속에 자리잡지 않게 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우리의 눈을 예수님께 고정하는 길입니다.

마 14:27~31 예수께서 즉시 일러 가라사대,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만일 주시어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한대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 가는지라 소리질러 가로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저를 붙잡으시며 가라사대,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우리가 감정들과 두려움 혹은 부정적인 모습이나 다른 사람들의 말로 인하여 영향을 받기 시작할 때, 우리는 빠지게 됩니다.

➤ **근심**

의심처럼, 근심은 믿음의 반대입니다. 믿음으로 걷고 있으면서 동시에 근심할 수 없습니다! 근심은 죄입니다. 근심은 하나님의 말씀이 진실되지 않다고 믿고 있는 것입니다.

눅 12:22, 29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 **부정적인 생각들을 거부하십시오**

우리는 부정적인 생각들을 즉각적으로 거부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연약함과 질병의 생각들이 우리의 마음을(화전으로써) 때리는 순간, 우리는 의도적으로 그 생각들을 거부해야 합니다. 우리는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예수께 복종시켜야 합니다.

고후 10:3~5 우리가 육체에 있어 행하나 육체대로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우는 병기는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진을 파하는 강력이라 모든 이론을 파하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들 다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하니.

우리는 항상 우리의 생각들을 점검해야 하며, 우리의 병 고침과 건강과 관련하여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리스도의 생각들에 일치시키고, 복종시킴을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되지 않는 생각들이나 증상들을 거부하도록 훈련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내 생각에 독감에 걸린 것 같아” 와 같은 연약함을 가져오는 생각들을 거부해야 됩니다. 이것은 사탄으로 하여금 우리를 패배 시키도록 문을 열어 놓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탄의 체계에 정신을 바짝 차리게 되면, 우리는 우리의 건강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삶의 폭풍에 대해 당당히 일어 서라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씨를 우리의 마음에 받은 후, 들판의 새들로 모형화 된 사탄이 그 씨를 훔치려 즉시 올 것이라고 경고를 받았습니다.

막 4:3-4, 14-17 들으라!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지매; 새들이 와서 먹어 버렸고

예수님께서서는 이 비유를 다음과 같이 설명하셨습니다.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라. 말씀이 길가에 뿌리웠다는 것은 이들이니 곧 말씀을 들었을 때에 사단이 즉시 와서 저희에게 뿌리운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또 이와 같이 들 밭에 뿌리웠다는 것은 이들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에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을 인하여 환란이나 핍박이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곧 감정이 상하는 자요 - KJV).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부터 어떤 진리들을 받게 되면, 사탄이 즉시 그것을 훔치려 올 것이라고 예수님께서서는 경고하셨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서는 우리에게서 훔치려 오는 사탄의 음모는 환란과 핍박을 사용할 것이라고 분명히 하셨습니다.

환란이나 핍박

환란이나 핍박이 무엇입니까?

웹스터 사전은 환란(tribulation)이라는 말을 재난, 고통, 곤궁, 압제, 큰 슬픔, 고난, 시련이라는 단어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핍박(persecution)이라는 말은 특별히 종교적인 이유로 지속적이고, 달갑지 않은 관심, 고통의 시련, 형벌

혹은 죽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한 개인의 삶 속에 남아있도록 허용되면, 사탄이 그들을 패퇴시킬 수 없음을 사탄 그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탄은 사람들로 하여금 그 특정한 말씀에 의심을 가지도록 하기 위해 어떠한 짓도 서슴없이 할 것입니다.

어느 한 개인이 병 고침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 그의(그녀의) 몸 속에 병 고침의 나타남을 받게 된다면, 종종 사탄은 자신의 증상과 고통의 화전들을 세차게 쏘아댁니다. 질병이 다시 돌아왔다고 말하면서, 그들 마음에 부정적인 상상의 화전을 집어 넣으려고 합니다.

큰 폭풍

예수님께서 어느 한 배에 앉으셔서, 해변가에 모여있던 큰 무리에게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사탄이 하나님의 말씀의 씨를 훔치려 즉시 올 것이라고 사람들에게 경고하셨습니다.

얼마 안 있어, 바로 그 날, 그들이 해변 반대 쪽으로 건너갈 때 예수님은 배 뒤 쪽에서 주무셨습니다.

막 4:37~39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부딪혀 배에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시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가로되, “선생님이여, 우리의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터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 하나님 말씀 때문에 움

하나님 말씀 때문에, 환란과 핍박은 거대한 폭풍 형태로 왔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탄은 하나님의 말씀을 제자들의 마음으로부터 훔쳐가기 위해 즉시 왔습니다. 믿음으로 행하고, 폭풍에 대해 말하기 보다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 내용과 같이 제자들은 감정이 상했습니다.

호수에서 빈번한 폭풍을 다루는데 경험이 있던 이들 어부들은 자신들이 가라앉을 줄 알고 겁먹고 당황하며, 두려워 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주무시고, 그들의 상황을 돌아보지 않는 것처럼 보여 감정이 상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깨우고, 추궁하였습니다. “선생님, 어찌하여 우리가 죽어가는 것을 돌아보지 않으십니까?”

아마도, 우리는 병과 질병과 고통이라는 환란과 핍박에 대해“어찌하여 제가 죽어가는 것을 돌아보지 않으십니까? 이 증상들이 저에게 나타났는데 어찌하여 돌아보지 않으십니까?”라고 하나님께 부르짖음으로 반응을 하였습니다. 아마도, 우리도 처음 제자들처럼, 감정이 상해 이러한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나도록 허락한 하나님을 비난하였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우리도 또한 사탄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서 흠쳐가도록 허용했습니다.

➤ “잠잠하고 고요하라”

막 4:39~41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저희가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저가 뉘기에 바람과 바다라도 순종하는고!” 하였더라.

만일 사탄이 우리가 받아들인 하나님의 말씀을 흠쳐갈 수 있다면, 사탄은 또한 병과 질병의 증상들을 우리에게 도로 가져다 올 수 있습니다.

사탄이 우리의 삶 가운데 폭풍을 가져올 때, 예수님처럼 우리도 우리의 배에서 담대하게 일어나 확신을 갖고 하나님의 말씀을 말해야 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할 때, 우리의 믿음은 자랄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개인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입증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믿음 안에서 더욱 더, 더욱 더 강하여질 것입니다!

우리의 결정

환란과 핍박의 화전(the fiery darts)이 올 때, 우리는 결정을 해야 합니다.

-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까? 아니면 우리의 전통적인 믿음을 믿습니까?
-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까? 아니면 우리의 증상을 믿습니까?
-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까? 아니면 우리의 의심하는 친구들의 말을 믿습니까?
-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까? 아니면 의사들의 보고를 믿습니까?

우리는 의사들이나 친구들이 무엇을 말하든지 아니면 증상이 어떠하든지 간에 관계없이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기로 우리 안에서 결정해야 합니다. 이 순간에도, 우리는 다른 사람의 믿음과 가르침 혹은 간증 위에 설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갖고, 하나님의 말씀에 확고히 기반을 두고 일어 서야 합니다.

이 세상의 염려들

예수님께서서는 우리가 이 세상의 염려들 그리고 세상적인 생각과 태도가 우리 마음에 들어오도록 허용한다면, 우리가 받아들인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삶으로부터 나와 질식될 수 있음을 경고하셨습니다.

막 4:19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치 못하게 되는 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묵상함으로, 우리 마음의 토양을 기경하고, 물을 대어 놓으면, 우리의 마음은 옥토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풍성한 축복과 승리하는 삶을 살 것입니다.

막 4:20 좋은 땅에 뿌리웠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삼십 배와 육십 배와 백 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사탄에게 장소를 제공하지 말 것

우리의 삶으로부터 죄를 멀리함으로 마귀에게 문을 열어주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더 이상 죄짓지 말라”

베데스다 연못에서 38 년 동안 병마에 시달려 온 무력한 한 남자를 고치신 후에, 예수님께서 그 사람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주기 위해 그 사람을 찾으셨습니다.

요 5:14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네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하시니

우리가 아직 고백하지 않은 죄나 혹은 우리의 삶으로부터 회개하지 않은 죄를 가지고 있으면, 마귀로 하여금 우리에게 질병을 가져 다 주며, 우리의 건강을 도둑질 해가도록 틈을 제공하는 셈이 됩니다.

엡 4:27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귀신들에게 틈을 주지 말라

병마들은 항상 다시 들어 올 틈을 찾고, 그 집으로 돌아 가려고 합니다.

마 12:43~45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가로되, ‘내가 나온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 보니 그 집이 비고, 소제되고, 수리 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일곱을 태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집을 가득 채워라

우리는 우리의 집인 우리의 몸을 가득 채워야 합니다.

➤ 예수로

계 3:20 불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 성령으로

고전 3:16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 하나님의 말씀으로

요 15:7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 믿음으로

요일 5:4 대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하나님의 온전한 성품은 죄에 대해 참으실 수 없으십니다. 우리가 우리 삶 속에서 죄를 계속 허용한다면, 우리는 우리자신을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부터 제거 시키며, 사탄으로 하여금 우리의 건강과 마음의 평강을 훔쳐가도록 문을 열어 주게 됩니다.

당신의 건강을 간직하기 위해 싸워라!

갑옷을 입으라

믿음의 방패를 강하게 하며, 의심과 불신의 마귀의 화전을 꺼버리도록 항상 준비하십시오.

건강은 하나님의 뜻임

당신이 건강한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앎으로, 당신은 신적 건강함(divine health) 속에서 걸어갈 수 있습니다.

행 10:38 ...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붓듯 하셨으며, 저가 두루 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요삼 2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잘 됨 같이, 네가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믿음을 견고히 붙들라

우리는 우리가 고백하는 믿음을 견고히 붙들어야 합니다. 우리의 고백은 우리가 어떻게 살며, 우리가 무엇을 하며, 우리가 무엇을 말하느냐?입니다.

히 4:14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있으니 승천하신 자 곧 하나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confession)를 굳게 잡을지어다.

롬 10:6-10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이같이 말하되, “네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려는 것이요.” 혹 “‘누가 음부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네게 가까워, 네 입에 있으며, 네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우리는 부주의한 말로써 우리의 입이 우리의 간증(역자 주: 생활 가운데서 인용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망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이 하신 바를 말함으로써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의 믿음을 굳게

붙잡아야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말하십시오

반대되는 증상들에 상관없이, 계속해서 믿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십시오.

을 3:10b ...약한 자도 이르기를, ‘나는 강하다’ 할지어다.

고후 4:13 기록한 바, “내가 믿는 고로 말하였다.” 한 것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는 고로 또한 말하노라.

처음에는 이상하고 심지어 어렵게 보일는지 모르나, 만일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훈련을 하게 되면 분명히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것이 된 승리의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정복자 보다 더한 자가 되라!

우리는 우리가 정복자보다 더한 자임을 알아야 합니다!

롬 8:37~39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환경들, 귀신들 혹은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하나님의 보호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단 한 사람 우리를 끊어 버릴 수 있는 자가 있다면 그는 우리 스스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누구임을 알게 됨으로써 우리는 믿음을 유지할 수 있고, 건강함 속에 머물러 있을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나음을 입고, 그들의 나음을 간직하며, 그리고 완전한 건강함 속에 사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는 영적 전쟁과 믿음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이해하고 또 따라가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의심과 죄를 피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믿고, 말하며, 행하며 우리가 누구인 것을 인식하게 되면 우리는 몸과 혼 속에서 하나님의 건강을 누리며 살게 될 것입니다!

문 제

1. 개인의 병 고침을 방해할 수 있는 세 가지가 무엇이며, 어떻게 그것들이 극복되어집니까?
2. 씨 뿌리는 자의 비유와 큰 폭풍 사이의 관계는 무엇이며, 이것이 당신과 어떤 연관이 있습니까?
3. 사탄과 어떻게 싸울 수 있으며, 어떻게 우리의 건강을 간직할 수 있습니까?